

文字資料로 본 新羅王京

李 泳 鎬*

- | | |
|----------------|------------|
| I. 머리말 | IV. 왕경의 사찰 |
| II. 왕경의 호칭과 모습 | V. 맺음말 |
| III. 궁궐과 관부 | |

[국문초록]

이 글은 문헌자료가 아닌 문자자료를 통해 신라 왕경의 모습을 그려본 것이다. 신라 금석문, 목간, 고문서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고려 초의 자료도 부분적으로 이용하였다. 문자자료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체계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신라 당대 자료의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았다.

먼저 신라 수도의 호칭은 20종 정도의 용례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京’자를 사용한 것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都’ ‘城’ ‘邑’ 등의 글자를 사용하여 수도임을 나타내었다. 지명의 앞뒤에 ‘京’자나 ‘都’자를 붙이거나, ‘某城’ 또는 ‘某邑’이라 한 것이다. 따라서 京, 都, 城, 邑 4자가 수도를 나타내는 글자로서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王都와 王城, 金京과 金城처럼 ‘王’자나 ‘金’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들 명칭이 사용된 시기별 분포를 살핀 결과, 신라만의 독특한 표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이 문헌자료에 흔히 보이는 ‘京城’이나 ‘王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leeyho@knu.ac.kr

京’이란 용어가 신라 당시의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왕경의 행정 구역에는 6부와 里, 坊이 있었다. 또한 산, 계곡, 숲과 같은 자연환경과 함께, 산성, 우물, 정자, 田莊, 금입택, 와요지 등의 인공적인 시설도 존재하였다.

궁궐의 호칭으로 20여 종이 사용되었으나, 某宮으로 쓴 경우와 某闕로 쓴 경우가 많았다. ‘宮’ 또는 ‘闕’이 일반적인 표기였던 것이다. 주요 전각으로 蘭殿과 祕殿, 思正堂 등이 있었고, 궁문으로는 北宜門, 隅宮 北門과 西門, 東門, 開義門, 策事門, 思易門 등이 있었다. 北宜門은 思正堂의 문이었다. 사정당에는 남북 또는 동서남북의 4방에 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큰 전각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신라의 핵심 4부인 집사부, 병부, 예부, 창부가 모두 나타났으며, 내성 및 동궁관 산하의 일부 내정관부도 확인하였다. 또한 砲石’ 명문기와를 통해서도 남산 주변 절경지에 포석정과 같은 亭子가 여럿 존재함을 밝혔다.

사찰의 검토에서는 문헌에 없는 다수의 사찰명이 확인되었다. 특히 진흥왕대의 實際寺와 신덕왕대의 實際寺가 다르다는 사실, 鵠寺였던 崇福寺가 고려 초에 다시 鵠寺로 불렸다는 사실, 그리고 황복사 비편에서 봉덕사, 봉성사의 처음 이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감은사나 영묘사, 흥륜사의 처음 명칭도 밝힐 수 있었다. 나아가 芬皇寺의 명칭을 ‘芬王’으로 표기한 것, 皇福寺의 명칭을 ‘王福’으로 표기한 것, 그리고 皇龍寺를 [皇/王]籠寺’로 표기한 것 등의 사례에서, ‘皇’자나 ‘龍’자의 사용에 어떤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주제어 : 文字資料, 金石文, 木簡, 古文書, 新羅王京, 宮闕, 官府, 佛教寺院

I. 머리말

신라의 왕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 지구였다. 궁궐, 관청, 사원, 주택 등이 밀집하고, 전성기에는 수십만의 인구가 모여 살았으며, 전국 각처의 주요 물자가 집중되고 거래되는 교역의 장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경주 지역 곳곳에는 당시의 영화를 말해주는 유적·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경주 지역에는 크고 작은 대형 고분들이 많이 분포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금관총, 서봉총 등의 고분이 발굴되었으나 이는 진정한 의미의 학술적 발굴이라 할 수 없었다. 신라 왕경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발굴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해방 후 천마총, 황남대총 등 대형 고분이 발굴되었고, 월성, 월성 해자, 월지(안압지), 황룡사지, 사천왕사지, 감은사지, 와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월정교가 복원되고, 황룡사 9층탑 재건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신라 왕경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라의 궁성이었던 월성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여기서는 문자자료에 나타난 신라 왕경의 모습에 대해 살피려 한다. 시기는 삼국시대부터 신라 말까지로 하되, 금석문, 목간, 고문서 등의 자료를 주요 대상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고려 초에도 신라시기의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었고, 그 父祖를 설명하면서 신라 당시를 언급한 부분도 없지 않으므로, 10세기 이후의 자료라도 필요할 경우 활용하도록 하겠다.

고문서는 양이 많지 않아 금석문과 목간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목간도 특정 시기의 것으로서 양적 질적 측면에서 금석문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래서 자연 금석문의 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기적으로 넓게 퍼져 있고, 내용도 훨씬 풍부하기 때문이다. 금석문의 종류로는 금

문과 석문, 기와명문, 토기 및 전돌 명문 등이 있었다. 그러나 종종 내용이 중복되거나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에는 대표적인 자료를 선별해 활용하였다.

이 글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아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역사서를 토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편적 자료 활용이라는 한계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신라인들이 직접 남긴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생각한다. 후대의 관점에서 윤색된 부분이 거의 없고, 당시의 모습 그대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1차 자료를 활용한 이 연구가 신라 왕경의 이해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II. 왕경의 호칭과 모습

신라의 국호와 왕경의 호칭은 언제부터 명확히 구분되었을까? 처음에는 별 구분 없이 사용되다가 점차 분리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고구려 광개토왕비에 따르면, 400년에 광개토왕이 步騎 5만의 군대를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는데, 고구려군이 南居城을 거쳐 新羅城에 이르니 그곳에 왜군이 가득하였다고 한다. 이때의 新羅城은 신라의 수도 곧 國都¹⁾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신라가 아닌 고구려에서 사용한 예이다.

신라에서는 503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항 냉수리신라비의 ‘斯羅’²⁾ 524년에 건립된 울진 봉평리신라비의 新羅六部 云云에서의 ‘新羅’

1)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고구려·백제·낙랑 편)(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p.18.

2)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I)』(신라 I·가야 편)(1992), p.7.

를 국호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시는 국호와 왕경의 호칭이 명쾌히 분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금석문, 고문서 등의 문자자료에서 국호가 아닌 왕경을 가리킴이 분명한 사례를 연대순으로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신라 왕경의 호칭

| 번호 | 명칭 | 연대 ³⁾ | 관련 자료 ⁴⁾ |
|----|----|------------------------------|---|
| 1 | 金京 | 722년 | 金京元千毛主作 [大岾城 石刻] 金京道口 [大岾城 石刻] |
| 2 | 大京 | 755년 | 經心匠大京能吉奈麻丐古奈麻 佛菩薩像筆師同京義本韓奈麻 丁得奈麻 □得舍知 豆烏舍 經題筆師同京同智韓舍六頭品父吉得阿浪 [이상 新羅白紙墨 書華嚴經寫經 跋文] |
| 3 | 京師 | 755년 771년 872년 950년 | 成檀越新羅國京師順□ [新羅白紙墨書華嚴經寫經 跋文] 煥煥乎京師 [聖德大王神鍾銘] 禪師諱慧徹 字體空 俗姓朴氏 京師人也 [大安寺寂忍禪師塔 碑] 大師 法諱允多 字法信 京師人也 [大安寺廣慈大師塔碑] |
| 4 | 王城 | 800-800년 924년경 954년 | 王城西北 有一小寺 [高仙寺誓幢和尚塔碑] 入王城 省母社 [聖住寺朗慧和尚塔碑] 軋寧初 至止王城 薰蒼荀於焚香之寺 [太子寺朗空大師塔碑] |
| 5 | 京 | 810년 891년 924년경 | 壬午年 京 奉德寺 永興寺 天嚴寺 寶藏寺 施食二千七百十三 石 [仁陽寺碑] 龍紀三年辛亥十月 日 僧入雲京租一百碩 [開仙寺石燈記] 上知不可强 酒降芝檢 以尙州深妙寺不遠京 請禪那別館 謝 辭不獲 往屺之 [聖住寺朗慧和尚塔碑] |
| 6 | 東京 | 813년 | 禪師 俗姓金氏 東京 御里人也 [斷俗寺神行禪師碑] |
| 7 | 金城 | 813년 896년 | 金城鼎族 紫府親皇 [斷俗寺神行禪師碑] 金城之离 日觀之麓 有伽藍號崇福者 [崇福寺碑] |
| 8 | 京邑 | 845년경 887년 954년 | 者(?)辰韓京邑[△所] [金立之撰 聖住寺碑 제2편] 仍貫籍于大皇龍寺 徵詣京邑 [雙谿寺眞鑑禪師塔碑] 乃以天祐三年 秋九月初 忽出溟郊 方歸京邑 [太子寺朗空大 師塔碑] |

| | | | |
|----|----|-------|---|
| 9 | 京畿 | 884년 | 大王聆風仰道 勞于夢魂 願闢禪扉 請入京畿 [寶林寺普照禪師塔碑] |
| 10 | 京都 | 886년 | 諱利觀 字有者 金姓 京都人也 [沙林寺弘覺禪師塔碑] |
| 11 | 國城 | 896년 | 至乃國城無惜 能令塔廟相望 [崇福寺碑] |
| 12 | 都邑 | 905년 | □師應召 來儀都邑 拜下禮也 [瑩原寺秀澈和尚塔碑] ⁵⁾ |
| 13 | 都城 | 905년 | 居無何 以茲密邇都城 泉石清宮 塵□□□ [瑩原寺秀澈和尚塔碑] |
| 14 | 王都 | 924년 | 其世緣則王都人 金姓子 號道憲 字智詵 [鳳巖寺智證大師塔碑] |
| 15 | 玉京 | 924년경 | 越二年 攻石封層冢 聲聞玉京 [聖住寺朗慧和尚塔碑] |
| 16 | 畿下 | 924년경 | 欵爾至畿下 及見 先大王冕服拜爲師 [聖住寺朗慧和尚塔碑] |
| 17 | 城邑 | 924년경 | 咸通十二年秋 飛鵠頭書 以傳召曰 山林何親 城邑何疎 [聖住寺朗慧和尚塔碑] |
| 18 | 京華 | 941년 | (景明大王) 特飛丹詔 欲赴京華 禪師△△而行 至於設佛 住持於東泉寺 趨觀於北闕中 [境清禪院慈寂禪師塔碑] |
| 19 | 京輦 | 944년 | (정효대사) 雖然深感丹誠 豈因駐足 所恨近於京輦 不愜雅懷 [興寧寺澄曉大師塔碑] |
| 20 | 帝鄉 | 954년 | 神德大王 光統不圖 寵徵赴闕 至貞明元年春 大師遽携禪衆 來至 帝鄉 [太子寺朗空大師塔碑] |

- 3) 비석은 건립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을 때는 찬술 시기를 적었다. 이 원칙은 이 글의 모든 표에 해당한다. 그러다 보니 실제 기사의 내용은 대부분 그 이전 시기의 사실들이다. 여기서는 해당 용어에 밑줄을 그었다.
- 4) 전거는 아래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신자료의 경우 각주에 제시하였다. 이하 표에서도 같음.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황룡사 출토 유물 자료집) 유물로 본 신라 황룡사』(2013).
 國立慶州博物館, 『文字로 본 新羅』(2002).
 국립경주박물관·慶州世界文化엑스포조직위원회, 『新羅瓦塼』(2000).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나무 속 압호 목간』(예맥, 2009).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석가탑 유물 2 : 重修文書』(2009).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개정판) 韓國의 古代木簡』(예맥출판사, 2006).
 노명호 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서울대출판부, 2000).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Ⅲ)』(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한국역사연구회,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下)』(혜안, 1996).
 許興植 編, 『韓國金石全文(中世上)』(아세아문화사, 1984).
- 5) 비석 제1행의 절 이름을 ‘深源寺’로 읽어 왔으나(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譯註 韓國古代金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 수도의 호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金京, 大京, 京師, 王城, 京, 東京, 金城, 京邑, 京輦, 京都, 國城, 都邑, 都城, 王都, 玉京, 輦下, 城邑, 京華, 京輦, 帝鄉 등으로서 20개 정도의 용례가 확인되었다. 京, 京都, 京師, 東京, 金城, 王都, 都城 등 7례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도 찾을 수 있으나, 나머지 용례는 처음 나타났다.

이 가운데 ‘京’자를 사용한 것이 金京, 大京, 京師, 京, 東京, 京邑, 京輦, 京都, 玉京, 京華, 京輦 등 11례로서 가장 많았다. ‘京’자 한 자로 쓰기도 하지만, 첫 글자에 ‘京’자를 사용한 것이 6례, 뒷 글자에 ‘京’자를 사용한 것이 4례였다, 다음으로는 ‘都’나 ‘城’ ‘邑’을 붙여 수도임을 나타내었다. 京都, 都城 都邑, 王都 등 ‘都’자를 붙인 것이 4례, 金城, 都城, 國城, 王城 등 ‘某城’이라 한 것이 4례, 京邑, 都邑, 城邑이라 하여 ‘某邑’이라 한 것이 3례였다. 따라서 京, 都, 城, 邑 4자가 수도를 나타내는 글자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王’자나 ‘金’자를 쓰기도 하였다. 王都和 王城, 金京과 金城이 그것이다. ‘王’자를 쓴 것은 임금이 사는 곳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金’자를 써서 金京과 金城이라 한 것은 뜻밖이다. 그밖에 輦下, 帝鄉 등도 있으나 이는 중국의 용례를 활용한 것이다.

755년에 작성된 新羅白紙墨書嚴經寫經 跋文에서는 京師와 大京이 같이 쓰였고, 813년에 건립된 斷俗寺神行禪師碑에서는 東京과 金城이 같이 쓰였다. 896년에 지은 송복사비에서는 金城과 國城이 함께 사용되었고, 905년에 건립된 瑩原寺秀澈和尚塔碑에서는 都邑과 都城이 함께 사용되었다. 또한 924년경에 찬술된 聖住寺朗慧和尚塔碑에서는 京, 王城, 玉京, 輦下, 城邑 등으로 다양하게 쓰였다. 이렇게 한 비문에서 복수의 표기

石文(III)』(신라 2·발해 편)(1992), p.159) 최근 판독에서 ‘瑩原寺’로 밝혀진 만큼 ‘瑩原寺秀澈和尚塔碑’로 수정한다. 정선중, 「실상사 秀澈和尚塔碑의 陰記와 중건에 대하여」 『불교문화연구』 11(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09), p.176 및 최경선, 「영원사수철화상비」의 판독과 찬자(撰者)·서자(書者)에 대한 검토 -신라 말 당 관계의 수용과 정치운영과 관련하여- 『역사와 현실』 101(2016), p.211.

가 등장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는 신라 수도를 나타내는 이름에 특정 표기가 없었으며,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여러 변형된 형태를 자유롭게 사용하였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⁶⁾

한편, 이들 이름이 처음 사용된 시기별 분포를 보면, 통일 전 중고기는 없고, 중대에 金京, 京師, 大京이 사용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하대의 사례들이었다. 大京은 小京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일 것이지만, 연이어서 大京을 표시할 때에는 同京으로 써서 당시의 표기법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문헌자료에서 흔히 보이는 京城이나 王京 이란 용어는 신라 당시의 문자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京師는 중국의 용어이므로, 신라 당대에 사용된 바로는 金京과 大京이 가장 오래된 이름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신라 고유의 용어인 金城과 金京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있었다.⁷⁾ 또한 박방룡은 신라백지묵서화엄경사경은 지방에서 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비하여 관문성(신대리성)은 관청이 주도한 국가적인 사업이었으므로, 金京과 大京 두 호칭 가운데는 金京이 더 적합하며, 金京이 당시에 통용되던 공식 명칭이라고 주장하였다.⁸⁾ 경칭할만한 견해이지만, 금경의 사례가 이밖에 달리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서울을 京이라 표현한 경우는 여러 자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810년에 만들어진 창녕 仁陽寺碑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802년의 인양사 출신의 한 승려가 京의 奉德寺, 永興寺, 天嚴寺, 寶藏寺의 4곳에 곡식 2,713석을 시주하였다고 한다.⁹⁾ 사원을 열거하면서 앞에 ‘京’자

6) 고려 광종 26년(975) 金廷彦이 찬한 「高達院元宗大師慧眞塔碑」(許興植 편, 『韓國金石全文(中世上)』(1984), pp.394-395 ; 한국역사연구회,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1996), pp.289-290)에 ‘玉京’, ‘金城’, ‘王城’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고려의 수도 개경을 뜻한다. 고려시대에는 金城도 수도를 뜻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7) 東潮·田中俊明, 『韓國의 古代遺蹟(新羅篇)』(中央公論社, 1988), pp.25-26.

8) 朴方龍, 『新羅都城』(학연문화사, 2013), pp.18-21.

9) 인양사비의 판독과 내용은 하일식, 「昌寧 仁陽寺碑文의 研究 -8세기 말~9세기 초 신라 지방사회의 단면-」 『韓國史研究』 95(1996) 참조. 특히 天嚴寺는 종래 天嚴寺, 天嚴寺 두 가지

를 명시한 것은 봉덕사, 영흥사, 천엄사, 보장사가 중앙의 사원임을 밝혀 창녕 주변의 지방 사원들과 구별하려는 의도였다고 하겠다.

그러면 왕경의 표기가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우선 별칭으로 많이 불린 데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이는 신라 한문학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해석될 요소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신라시대의 발음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¹⁰⁾

왕경의 행정구역에는 6部가 있고, 里가 있고, 坊이 있었다. 또한 산, 계곡, 숲과 같은 자연환경과 함께, 산성, 우물, 정자, 田莊, 금입택, 와요지 등의 인공적인 시설도 존재하였다. 문자자료에 나타난 이들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왕경의 내부 모습

| | 명칭 | 연대 | 관련 자료 |
|---|-----------|---------------------|--|
| 1 | 主刀里 | 591년 | 喙部 主刀里 受作廿一步一寸 [南山新城碑 제3비] |
| 2 | 翫比部 上里 | 6세기 후반-7세기 중반 | (1면) 翫比部上里 上里 阿今里 岸上里 [월성 해자 151호 목간] |
| 3 | 上里 | " | (1면) 翫比部上里 上里 阿今里 岸上里 [월성 해자 151호 목간] |
| 4 | 阿今里 | " | (1면) 翫比部上里 上里 阿今里 岸上里 [월성 해자 151호 목간] |
| 5 | 岸上里 | " | (1면) 翫比部上里 上里 阿今里 岸上里 [월성 해자 151호 목간] |
| 6 | 赤里 | " | (2면) 赤里 □里 [월성 해자 151호 목간] |

로 관독해왔으나, 天嚴寺가 옳다고 한다(p.28).

10) 徐伐, 徐羅伐, 始林, 祥林, 鷄林, 金城, 東京, 東都, 斯盧, 新羅, 斯羅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된 것은 식별을 음借 또는 訓借했기 때문이라고 한 견해가 있다. 文暉鉉, 『新羅 國號의 研究』 『大丘史學』 2(1970) ; 『新羅史研究』(경북대학교 출판부, 1983), p.7 ; 문경현, 『新羅王京攷』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6(『新羅王京研究』)(1995), p.186.

| | | | |
|----|-------|-------|--|
| 7 | 伐[品里] | " | (4면) []리 伐[品里] 赤居伐 麻支 牟喙 仲里 新里 上里 下里 [월성 해자 151호 목간] |
| 8 | 赤居伐 | " | (4면) []리 伐[品里] 赤居伐 麻支 牟喙 仲里 新里 上里 下里 [월성 해자 151호 목간] |
| 9 | 麻支 | " | (4면) []리 伐[品里] 赤居伐 麻支 牟喙 仲里 新里 上里 下里 [월성 해자 151호 목간] |
| 10 | 牟喙仲里 | " | (4면) []리 伐[品里] 赤居伐 麻支 牟喙 仲里 新里 上里 下里 [월성 해자 151호 목간] |
| 11 | 新里 | " | (4면) []리 伐[品里] 赤居伐 麻支 牟喙 仲里 新里 上里 下里 [월성 해자 151호 목간] |
| 12 | 上里 | " | (4면) []리 伐[品里] 赤居伐 麻支 牟喙 仲里 新里 上里 下里 [월성 해자 151호 목간] |
| 13 | 下里 | " | (4면) []리 伐[品里] 赤居伐 麻支 牟喙 仲里 新里 上里 下里 [월성 해자 151호 목간] |
| 14 | 御里 | 813년 | 禪師俗姓金氏 東京 御里人也 [斷俗寺神行禪師碑] |
| 15 | 太樹坊 | 나말여초 | [포항시 흥해읍 남미길부성 출토 기와] |
| 16 | 南山 | 591년 | 南山新城作節如法以作後三年 崩破者罪教事... [南山新城碑 제1비] |
| | | 954년 | 大師遽携禪衆 來至帝鄉 依前命南山實際寺安之 [太子寺朗空大師塔碑] |
| 17 | 三山 | 687년 | ‘三山之闕’ ‘三山表色’ [文武王陵碑] |
| 18 | 甘山 | 720년 | 甘山寺 [甘山寺彌勒菩薩像造像記] 甘山莊田 [甘山寺阿彌陀像造像記] |
| 19 | 初月山 | 896년 | 有唐新羅國初月山大崇福寺碑銘并序 [崇福寺碑] 初月名山 便爲初地 [崇福寺碑] |
| 20 | 鼇岑 | 896년 | 伏惟 先大王 虹渚騰輝 鼇岑降跡 [崇福寺碑] |
| | 鼇山 | 924년 | 鷄林地鼇山側 [鳳巖寺智證大師塔碑] |
| 21 | 月含山 | 1024년 | 太平四年歲次甲子三月日 月含山瑜伽(業)仏國寺 无垢淨光塔 重修記 [불국사 석가탑 유물 2-重修文書] |
| 22 | 岬山 | 통일신라 | 岬山寺 [岬山寺址 출토 암기와] |
| 23 | 甲山 | 통일신라 | 甲山寺 [岬山寺址 출토 암기와] |
| 24 | 古他門 | 551년 | 此記者古他門中西南回行其作石立記 [明活山城作城碑] |
| 25 | 南山新城 | 591년 | 南山新城作節如法以作後三年 崩破者罪教事... [南山新城碑 제1비] |
| 26 | 書石谷 | 525년 | 古谷无名谷 善石得造書 以下爲名書石谷字作之 [울산광역시] |

| | | | |
|----|-------|------|--|
| | | | 울주군 川前里書石] |
| 27 | 密谷 | 통일신라 | 密谷之寺 [강동면 왕신리 310번지 출토 기와] |
| 28 | 安溪 | 통일신라 | 安溪寺 [강동면 안계리 안계사지 출토 암·수키와] |
| 29 | 因井 | 통일신라 | 因井之寺 [춘양(일정)교 서편 고대 출토 수막새] |
| 30 | 万井 | 통일신라 | 万井之寺 [구황동 목탑지 부근 가스관 매설지 출토 수막새] |
| 31 | 東泉 | 신라 말 | (景明大王) 住持於東泉寺 越觀於北闕中 [境清禪院慈寂禪師塔碑] |
| 32 | 東田泉 | 통일신라 | [경주 동천동 출토 암막새] |
| 33 | 砲石 | 통일신라 | [鮑石亭 주변 출토 암키와] |
| 34 | [神]遊林 | 통일신라 | [神]遊林 ¹¹⁾ [皇福寺碑片] |
| 35 | 甘山莊田 | 720년 | 故奉爲國主大王 伊浪愷元公 亡考 亡妣 亡弟小舍梁誠 沙門玄度 亡妻古路里 亡妹古寶里 又爲妻阿好里等 捨其甘山莊田 建此伽藍 仍造石阿彌陀像一軀 [甘山寺阿彌陀像造像記] |
| 36 | 望水宅 | 884년 | 敎下望水里南等宅 其出金一百六十分 租二千斛 助充裝飾功德 [寶林寺 普照禪師塔碑] |
| 37 | 里南宅 | 884년 | 敎下望水里南等宅 其出金一百六十分 租二千斛 助充裝飾功德 [寶林寺 普照禪師塔碑] |
| 38 | 東窯 | 통일신라 | [월성, 월지 등 출토 암키와] |
| 39 | 回窯 | 통일신라 | [황룡사지 출토 암키와] |
| 40 | 玉看窯 | 통일신라 | [황룡사지 출토 암키와] |

501년에 건립된 포항 중성리신라비에서는 喙(또는 喙部), 沙喙, 本波喙, 牟且伐喙이 나타나 탁부, 사탁부, 본피부, 모랑부의 4부가 보인다. 503년에 건립된 포항 냉수리신라비에서는 喙, 沙喙, 本彼, 斯彼(習比)의 4부가 나타났다. 이로써 한지부를 제외한 탁, 사탁, 본피, 모랑, 습비 등 5부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524년에 건립된 울진 봉평리신라비에서는 喙部, 沙喙部, 岑喙部(牟梁部), 本彼部의 4부만 나타났으나 ‘新羅六部’ 명문이 확인되어, 한지부를 포함한 6부가 모두 존재하였을 알 수 있었다. 한지부는 561년에 세운 창녕 진흥왕척경비의 ‘[漢只]伐部 屈玆智 大一伐干’이나,

11) 金福順·韓政鎬 編, 『韓國金石文集(14) -碑文10 造像銘-』(한국국학진흥원, 2012), p.47.

680년의 월지 출토 調露二年銘 寶相華文塼의 ‘漢只伐部 君若小舍’라 한테서 그 부명을 찾을 수 있다.¹²⁾

왕경의 部 아래에는 里와 坊이 존재하였다. 먼저 里의 존재는 남산신성비 제3비의 ‘喙部 主刀里’, 단속사 신행선사비의 ‘東京 御里’, 월성 해자 151호 목간의 ‘習比部 上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산신성비는 진평왕 13년(591)에 건립되었으므로, 이때 6부 아래에 里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속사 신행선사비는 통일 후인 813년의 자료인데, 부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월성 해자 151호 목간은 6세기 후반~7세기 중엽 제작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도 다양한 里가 확인되고 있다. (1면) 習比部上里 上里 阿今里 岸上里, (2면) 赤里 □里, (4면) []里 伐[品里] 赤居伐 麻支 | 牟喙 仲里 新里 上里 下里 등이 그것이다. 각 部 아래에 里로 편제된 지명과 里로 편제되지 않은 지명이 함께 나열되어 있었던 것이다.¹³⁾ 이들 里가 『삼국사기』 권34, 지리지에 전하는 35리,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한 조에 전하는 55리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里의 하위 단위로는 坊이 있는바 『삼국유사』에 1,360坊과 360坊의 두 기사가 전한다. 178,976戶 1,360坊¹⁴⁾과, 17萬戶 360坊¹⁵⁾의 기록이 그것이다. 현재 어느 한 쪽이 옳다고 할 결정적인 근거는 없다. 1,360방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하여 360방을 따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호수의 정확성으로 보면 오히려 전자가 옳을 가능성이 있다.¹⁶⁾

최근 포항시 흥해읍 남미질부성에서 ‘太樹坊’명 기와가 발견되었다. 이

12)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I)』(1992). p.62, p.209. 기타 6부명의 표기는 모두 생략한다.
 13) 尹善泰 「新羅 中古期 六部の 構造와 그 起源」 『新羅文化』 44(2014).
 14)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한.
 15) 『삼국유사』 권5, 피은8, 엄불사.
 16) 李泳鎬, 「7세기 新羅 王京의 變化」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6(『國邑에서 都城으로』(2005), p.207.

기와의 제작연대는 고려 초로 보지만 10세기까지 올려보기도 한다. 이 기와명문을 주목한 박방룡은 太樹를 『삼국유사』 권1, 기이1, 혁거세왕 조의 茂山 大樹村과 연관시켜 보았다. 무산 대수촌은 모량부이고, 경주시 건천읍 일대이므로, 신평리를 포함한 금척리와 방내리 일대에 모량부의 거점 마을 대수촌이 있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모량리 도시유적에 적어도 200개 이상의 방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 1,360방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⁷⁾

왕경의 산천으로는, 먼저 금석문에서 南山, 三山, 甘山, 初月山, 鰲岑, 鼈山 등이 나타났다. 먼저 三山을 신라의 大祀 3山으로 본다면, 奈歷, 穴禮, 骨火의 산을 말할 것이다.¹⁸⁾ 이는 삼국통일 후 문무왕릉비가 건립되던 신문왕 7년(687)¹⁹⁾에는 大祀 밖에도, 五岳을 비롯한 中祀, 霜岳을 비롯한 小祀 제도가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명활산과 남산은 각각 월성의 동쪽과 남쪽에 있으며, 현재 이름도 이와 같다. 남산에는 산성이 축조되었다. 현재 10기까지 발견된 남산신성비의 존재가 이를 말해준다. 1988년 경주 명활산성에서 축성비가 발견되었다. 명문의 ‘作城’이란 구절에서 明活山城作城碑라 불리게 되었다. 명활산성 조사에서 7개소의 門址가 확인되었다. 서남쪽으로 돌아가서 돌을 만들어 세웠다는 비문의 내용과, 실제 이 비가 붕괴된 북벽의 서쪽 인근에서 발견된 사실을 바탕으로, 古他門이 북문의 이름이었음이 밝혀졌다.²⁰⁾ 이로써 명활산성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더하게 되었다.

한편 남산은 남북으로 길쭉하게 뻗은 산으로, 남북 길이 약 8km, 동서

17) 朴方龍, 「王京의 復原」 『新羅都城』(2013), pp.394-405.

18) 『삼국사기』 권32, 잡지 제사.

19) 박철상, 『나는 옛것이 좋아 때론 깨진 빗돌을 찾아 다녔다』(너머북스, 2015), p.258.

李泳鎬 「新羅 國學의 成立과 變遷」 『歷史教育論集』 57(2015), pp.75-76.

20) 朴方龍, 「明活山城作城碑의 檢討」 『美術資料』 41(1998), p.72.

류환성, 「경주 명활성의 발굴성과와 향후 과제」 『韓國城郭學會 初代監事 沈正輔教授 退任 紀念論叢』(2014), p.171.

의 너비 약 4km이다. 『삼국유사』에서는 남산의 남쪽 봉우리를 高位山²¹⁾이라 불렀다고 한다. 鰲岑과 鰲山은 같은 산으로, 남산 한가운데에 위치한 金鰲山(金鰲山)을 말한다. 오늘날도 남산 남북의 두 봉우리를 高位峰과 金鰲峰이라 하는데, 남산을 흔히 金鰲山으로 부르기도 한다. 금오산이 남산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었던 것이다.

初月山은 지금의 송복사 터가 위치한 산의 이름이다. 『삼국유사』에서 南月山을 또한 甘山寺²²⁾라고 한 데서, 甘山은 남월산으로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 초기 불국사가 위치한 산의 이름은 月山이었다. 그리고 보면 왕경에 초월산, 남월산, 월함산 등 ‘月’자가 붙은 산명이 많은 것이 주목된다.²³⁾

기와 명문에서는 산명인 岬山(甲山)이 나타나고, 계곡명인 安溪·書石谷·密谷, 정자 이름인 砲石[亭], 그리고 우물과 샘 이름인 因井과 万井, 東泉과 東田泉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서석곡은 525년에 이름지어진 곳임이 밝혀졌다. 현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이지만, 조선시대에는 경주 관내였다. ‘砲石’ 명문은 포석정의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뒤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한편, 왕경의 숲으로 ‘遊林’이 주목된다. 황복사비편의 ‘遊林’은 두 글자밖에 확인되지 않지만, 사천왕사 창건의 유래를 가진 神遊林으로 추독할 수 있다. 뒤에서 살펴겠지만, 황복사비가 봉성사, 봉덕사의 창건 유래를 기록하였다면, 비슷한 시기 문무왕이 신유림에 사천왕사를 창건한 사실도 함께 적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숲의 이름을 신라 당시의 문자자료에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1) 『삼국유사』 권3, 탑상4, 천룡사.

22) 『삼국유사』 권3, 탑상4, 南月山(亦名 甘山寺).

23) 김유신이 수도한 斷石山을 일명 月生山이라 하였든가(『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慶州府, 山川 斷石山), 祇林寺가 위치한 곳이 舍月山인 점도 참고 된다.

또한 왕경에는 귀족들의 邸宅과 田莊, 願堂이 존재하였다. 금입택은 富潤大宅으로 알려진 귀족의 저택으로 흔히 35금입택이 있었다고 한다.²⁴⁾ 이 가운데 望水宅과 里上宅은 현안왕의 하교를 받아 장흥 寶林寺의 불사를 위해 金 160分과 租 2,000斛을 시주하였다. 租 2,000斛은 2萬斗에 달하며, 畝 1,333結에서 생산된 엄청난 소출량이라고 한다.²⁵⁾ 금입택이 가진 풍부한 경제력은 왕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사원에까지 미쳤던 것이다. 이는 이곳에 해당 금입택의 田莊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성덕왕대의 중아찬 金志全(金志誠)은 관직에서 은퇴한 뒤 감산사를 세우고, 석조 아미타상 1구와 석조 미륵보살상 1구를 만들었다. 이는 國主 大王과 伊滄 愷元公, 亡考, 亡妣, 亡弟, 亡妻, 亡妹와 후처 阿好里 등을 위한 것으로, 그가 갖고 있던 甘山莊田을 희사하여 만든 것이다. 신라의 중앙 귀족들이 재산을 내어 사원을 창건하는 것은 김지전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의 귀족들은 왕경과 지방 각처에 田莊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를 바탕으로 願堂을 창건하고 불상을 만들어 국왕과 자신들의 복을 빌었다고 하겠다.

월성, 월지 등에서 발견되는 東窯, 回窯, 玉看窯 등의 기와명문은 기와 제작처로 생각된다. 이들 요지에서 왕경의 주요 건축물 제작에 사용되는 기와를 공급하였다고 하겠다. 기와를 먼 거리까지 운반할 수는 없으므로 왕경이나 그 주변에 위치한 요지로 판단된다.²⁶⁾

24)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한.

25) 李基東, 「新羅 金入宅考」 『震檀學報』 45(1978) : 『新羅 骨制品社會와 花郎徒』(일조각, 1984), p.204.

26) 고려시대의 ‘仇於駟’銘 기와나 ‘茶淵院’, ‘彌勒院’, ‘大檀院’銘 기와로 보아 이들 驛과 院도 신라시대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신라시대의 도로가 고려, 조선시대에도 계속 사용되었고, 원이 주로 사찰을 근거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강봉원, 「“구어역”(仇於駟)의 위치에 관한 고찰 -불국사 경내 출토 “仇於駟”(구어일) 명문기와와 관련하여-」 『大丘史學』 98(2010). 朴方龍, 「新羅王都의 交通路; 驛·院을 중심으로」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6(『新羅王京研究』)(1995); 『新羅都城』(2013), p.289. 柳煥星, 「慶州 出土 高麗時代 “院”銘 기와의 檢討」 『木簡과 文字』 14(2015) 등 참조.

Ⅲ. 궁궐과 관부

신라 왕경에는 국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분포하였다. 그 가운데 왕이 거처하는 궁궐은 왕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聖所이었다. 궁궐 내외에는 여러 殿閣과 宮門이 있었고, 또한 행정을 담당하는 각종 官府와 위락 시설인 亭子 등이 분포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궁궐과 관련된 시설을 금석문과 목간에서 찾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궁궐과 여러 시설

| | 용어 | 연대 | 관련 자료 |
|---|-----|----------------------|--|
| 1 | 金闕 | 771년 | 六街龍雲 蔭灑於玉階 九天雷鼓 震響於金闕 [聖德大王神鍾銘] |
| 2 | 春宮 | 872년 905년 | 崇文臺郎 兼 春宮 中事省 臣 姚克一 奉教書 [皇龍寺九層木塔舍利函記] 以傳遺春宮奉食郎王輅 ²⁷⁾ 飛教慰問 [瑩原寺秀澈和尚塔碑] |
| 3 | 九重 | 890년 | 香名遠着 價高六合 譽及九重 [月光寺圓朗禪師塔碑] |
| 4 | 蓬萊宮 | 890년 | (崔致遠) 至蓬萊宮 因得竝琪樹上瑤墀 踞埃命珠箔外 [聖住寺朗慧和尚塔碑] |
| 5 | 南宮 | 890년 통일신라 통일신라 | 太傅王覽 謂介弟南宮相 [聖住寺朗慧和尚塔碑] '南宮之印' 명 암기와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 부지 우물 출토] '南宮之印' 명 암기와 [동천동 692-2번지 출토 기와] |
| 6 | 鳳沼 | 896년 | 據龍田而種德 捷鳳沼以沃心 [崇福寺碑] |
| 7 | 月池宮 | 924년 | 安信宿 引問心于月池宮 [鳳巖寺智證大師塔碑] 跡迫蘭殿之遊 誰不仰月池佳對 ²⁸⁾ [동상] |
| 8 | 藥宮 | 924년 937년 | 寡人 整其冕服 稍淨襟懷 延入藥宮 敬邀蘭殿 [鳳林寺眞鏡大師塔碑] 無何迥飭藥宮 高敷蓮座 待以師資之禮 [廣照寺眞澈大師塔碑] |
| 9 | 彤庭 | 924년 | 眞聖大王 遽飛睿札 徵赴彤庭 [鳳林寺眞鏡大師塔碑] |

| | | | |
|----|------|------------------------------|---|
| 10 | 象闕 | 924년 | 可謂天外鶴聲 早達於雞林之畔 人中龍德 難邀於象闕之旁 [鳳林寺眞鏡大師塔碑] |
| 11 | 龍闕 | 924년 | 金海府進禮城諸軍事明義將軍金仁匡 鯉庭稟訓 龍闕馳誠 歸仰禪門 助修寶所 [鳳林寺眞鏡大師塔碑] |
| 12 | 金殿 | 937년 | (진철대사) 便昇金殿 欽仰殊深 [廣照寺眞澈大師塔碑] |
| 13 | 九重之闕 | 940년 | 大師今辭樂土 欲入深山 高飛一軸之文 聊送九重之闕 [興法寺眞空大師塔碑] |
| 14 | 北闕 | 941년 | (景明大王) 特飛丹詔 欲赴京華 禪師△△而行 至於設佛 住持於東泉寺 趨觀於北闕中 [境清禪院慈寂禪師塔碑] |
| 15 | 皇居 | 954년 | (孝恭大王) 特遣僧正法賢等 聊飛鳳筆 徵赴皇居 [太子寺朗空大師塔碑] |
| 16 | 蘭殿 | 924년 | 寡人 整其冕服 稍淨襟懷 延入藁宮 敬邀蘭殿 特表師資之禮 恭申鑽仰之儀 [鳳林寺眞鏡大師塔碑] |
| 17 | 龍庭 | 944년 | 獻康大王 遽飛鳳筆 徵赴龍庭 [興寧寺澄曉大師塔碑] |
| 18 | 祕殿 | 954년 | 至十六日 引登祕殿 孤坐禪床 主上預淨 宸襟整其冕服 待以國師之禮 [太子寺朗空大師塔碑] |
| 19 | 在城 | 통일신라 | [月城 출토 암·수키와] [月池 출토 수막새] [皇龍寺址 출토 암키와] [금장리 와요지 출토 수키와] |
| 20 | 大宮 | 통일신라 | 「 里□ (5면) 寺□大宮土等敬白范典場老」 [월성 해자 148호 목간] |
| 21 | 東宮 | 통일신라 통일신라 통일신라 944년 | 辛番東宮洗宅 [國立慶州博物館 남측 부지 출토 청동접시] 東宮 [芬皇寺址 출토 토기] 東[宮] [月城 출토 토기 조각] ²⁹⁾ (眞聖大王) 特遣溟州僧正釋浦道 東宮內養安處玄等 遠降綸言 遙祈法力 [興寧寺澄曉大師塔碑] |
| 22 | 本宮 | 통일신라 | 本宮辛審 [月池 출토 목서명 접시] |
| 23 | 隅宮 | 통일신라 | 隅宮北門迺 同宮西門迺 [月池 출토 186호 목간-앞면] |
| 24 | 北宜門 | 통일신라 | 思正堂 北宜門 [月池 출토 청동 자물쇠] |
| 25 | 隅宮北門 | 통일신라 | 隅宮北門迺 同宮西門迺 [월지 출토 186호 목간-앞면] |
| 26 | 同宮西門 | 통일신라 | 隅宮北門迺 同宮西門迺 [월지 출토 186호 목간-앞면] |
| 27 | 東門 | 통일신라 | 東門迺 開義門迺 [월지 출토 186호 목간-뒷면] |

| | | | |
|----|-----|------|--------------------------------|
| 28 | 開義門 | 통일신라 | 東門迺 開義門迺 [월지 출토 186호 목간-뒷면] |
| 29 | 策事門 | 통일신라 | 策事門思易門金 [월지 출토 213호 목간-앞면, 뒷면] |
| 30 | 思易門 | 통일신라 | 策事門思易門金 [월지 출토 213호 목간-앞면, 뒷면] |

궁궐의 호칭으로는 金闕, 春宮, 九重, 蓬萊宮, 南宮, 鳳沼, 月池宮, 藥宮, 彤庭, 象闕, 龍闕, 金殿, 九重之闕, 北闕, 皇居, 在城, 大宮, 東宮, 本宮, 隅宮, 龍庭 등 20종 남짓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동궁과 춘궁처럼 같은 궁궐을 가리키는 것도 없지 않다. 그러나 某宮으로 쓴 것이 春宮, 蓬萊宮, 南宮, 月池宮, 藥宮, 大宮, 東宮, 本宮, 隅宮 등 9례, 某闕로 쓴 것이 金闕, 象闕, 龍闕, 九重之闕, 北闕 등 5례로 나타나, 宮 또는 闕이 왕의 처소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기였음을 알 수 있다. 궁궐 내 전각으로는 蘭殿과 祕殿, 그리고 후술할 思正堂이 있었다. 또한 궁문으로는 北宜門, 隅宮 北門과 西門, 東門, 開義門, 策事門, 思易門 등이 있었다.

大宮과 東宮, 月池宮, 在城 등은 『삼국사기』에도 실려 있다. 在城은 파사왕 22년(101)에 金城의 동남쪽에 성을 쌓고 月城 또는 在城이라 하였다.³⁰⁾ 진평왕 7년에는 大宮, 梁宮, 沙梁宮의 세 곳에 각각 私臣을 두었으나, 44년에 김용춘을 內省私臣에 임명하여 3궁의 일을 겸장케 했다고 한다.³¹⁾ 따라서 大宮은 월성을 가리키며, 本宮이라 한 것 또한 월성을 가리

27) 이는 흔히 “以傳東宮官奉食郎王輅”로 판독하여 왔다(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Ⅲ)』 (1992), p.166). 그러나 추만호는 ‘東宮官’을 ‘東春宮’으로 판독하였다(추만호, 「심원사 수철화상 능가보월탑비의 금석학적 분석」 『역사민속학』 1(1991), p.273). 또한 최경선은 ‘遺春宮’으로 판독하였다(최경선, 「『영원사수철화상비』의 판독과 찬자(撰者)·서자(書者)에 대한 검토 -신라 말 당 관제의 수용과 정치운영과 관련하여-」 『역사와 현실』 101(2016), p.209). 필자는 두 연구자의 견해를 받아들여 奉食郎 王輅의 소속 관부를 ‘春宮’으로 파악한다.

28) 蘭殿은 梁武帝와 達磨가 蘭殿에서 놀았던 故事에서 나온 용어이고, 月池는 月池宮을 가리킨다.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1992), p.187.

2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 왕궁 월성』(2018), p.71.

30) 『삼국사기』 권34, 지리1.

3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평왕 44년조.

킨다고 하겠다.

金闕, 春宮, 九重, 蓬萊宮, 南宮, 鳳沼, 藥宮, 蘭殿, 彤庭, 象闕, 龍闕, 金殿, 九重之闕, 北闕, 皇居, 祕殿, 龍庭 등의 다양한 표현은 문자자료에서 처음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金闕은 수도를 金城이라 하였으므로 그렇게 부른 듯하며, 九重과 九重之闕은 모두 九重宮闕로 파악된다. 蓬萊宮, 鳳沼, 藥宮, 彤庭, 象闕은 정식 명칭이라기보다는, 숭복사비문에서 禮部를 建禮仙門이라 표현하였듯이, 異稱 내지 美稱이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蓬萊宮, 蕊宮 등이 도교식 명칭이란 점도 유의할 만하다.

동궁과 남궁을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북궁과 함께 방향에 따른 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³²⁾ 동궁, 서궁, 남궁, 북궁 등을 상징하는 것이다. 동궁은 왕궁의 동쪽에 위치하여 太子宮일 것이지만, 남궁을 반드시 남쪽 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南宮相이 禮部의 장관을³³⁾ 의미한 데서, 남궁이 예부의 별칭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궁은 남쪽 궁궐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禮部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³⁴⁾ 한편에서는 왕실의 수공업품을 생산하는 雜工司인 南下所宮으로 추정하기도 한다.³⁵⁾ 문제는 ‘남궁지인’이란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일까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소규모의 내정관부보다는 중앙의 대형 관부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진평왕 44년 이후 3궁의 사무를 내성 사신이 모두 관장한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隅宮은 궁의 정식 이름이라기보다는³⁶⁾ 편의상 부른 호칭으로 이해

32) 이한상, 「慶州 月城 東南쪽 王宮遺蹟 調査의 成果 -南宮의 景觀復原을 위하여-」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6(「國邑에서 都城으로」)(2005).

33)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II)』 (1992), p.114.

34) 李泳鎬, 「新羅의 新發見 文字資料와 研究動向」 『韓國古代史研究』 57(2010), p.195.
이현태, 「신라 ‘南宮’의 성격 -‘南宮之印’명 기와의 출토지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1(2011).

35) 윤선태, 「雁鴨池 出土 ‘門號木簡’과 新羅 東宮의 警備 -國立慶州博物館 촬영 赤外線 善本寫眞을 중심으로-」 『新羅文物研究』 창간호(2007), p.82.

36) 하시모토 시게루(橋本繁), 「雁鴨池 木簡 判讀文의 再檢討」 『新羅文物研究』 창간호(2007),

된다. ‘모퉁이에 있는 궁궐’을 뜻하는 우궁이 원래의 이름일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月池宮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헌덕왕 14년(822) 봄 정월에 왕의 친동생인 秀宗을 副君으로 삼아 月池宮에 들어가게 하였다’고 하고, 동 녹진 열전에 “(헌덕왕) 14년(822)에 국왕에게 왕위를 이를 아들이 없으므로 친동생인 아우 秀宗을 儲貳로 삼아 月池宮에 들게 하였다”고도 하였다. 月池宮을 東宮으로 이해하고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궁과 다른 별개의 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³⁷⁾

蘭殿과 祕殿은 관부의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은유적 표현이다. 918년 11월 4일, 경명왕은 면류관과 예복을 정돈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였다. 진경대사 심희를 藥宮으로 인도하여 蘭殿에서 만나 師資의 禮를 표하고, 공경히 숭앙하는 자세를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蘭殿은 藥宮³⁸⁾ 안의 주요 殿閣으로 추측된다.³⁹⁾ 906년 9월 16일, 낭공대사 행적은 효공왕의 부름을 받아 祕殿에 들어가 고고하게 禪上에 앉았다. 효공왕이 미리 마음을 맑게 하고, 冕服을 바로 하고서 國師의 禮로서 대하며, 우러러 진리를 배우겠다는 뜻을 경건하게 폈다고 한다. 비전을 ‘대궐’⁴⁰⁾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구체적으로는 궁궐 내의 주요 전각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진경대사와 낭공대사가 난전과 비전에서에서 각각 國師로

p.98.

- 37) 김병곤, 「신라 헌덕왕대의 副君 秀宗의 정체성과 太子」 『東國史學』 55(2013).
김병곤, 「신라 東宮의 역할과 영역 -임해전 및 안압지와와 상관성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20(2015).
- 38) 도교 경전에 나오는 仙宮으로 蕊珠 또는 蕊珠宮이라고 한다.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 권11(2000), p.1248.
- 39) 고려 태조 22년(939)에 건립된 「보리사 대경대사탑비」에 “於是 難拒芝泥 再昇蘭殿”이라 한다든가, 혜종 원년(944)에 건립된 「오룡사 범경대사탑비」에 “及其方到柳營 便邀蘭殿”이라 하여, 蘭殿이 나온다(『韓國金石全文(中世上)』(1984), p.293, p.330 ; 『역주 나말여초금석문(上)』(1996), p.53, p.134). 「봉림사진경대사비」는 신라 경명왕이 찬한 것이나, 「보리사대경대사탑비」는 고려 최언위가 지었다. 「오룡사 범경대사탑비」는 찬자 미상이나 최언위로 추정할 견해가 있다. 葛城未治, 『朝鮮金石攷』(大阪屋號書店, 1935), p.318
- 40) 한국역사연구회, 『역주 나말여초금석문(下)』(1996), p.281.

책봉 받은 것을 보면, 이들은 같은 장소가 아닐까 한다.⁴¹⁾

궁문으로는 월지에서 출토된 목간과 철제 유물에서 隅宮北門, 同宮西門, 東門, 開義門, 北宜門, 策事門, 思易門 등이 나타났다. 월지 출토 186호 목간 앞면의 隅宮北門과 同宮西門은 隅宮의 北門과 西門을 가리킬 것이다. 따라서 隅宮에는 북문과 서문이 있었다고 하겠다. 그 뒷면의 東門과 開義門은 같은 隅宮의 동문과 남문(정문)으로 보거나⁴²⁾ 동궁의 外垣에 설치된 문으로 이해한다.⁴³⁾ 월지의 축조 연대는 문무왕 14년(674)이고,⁴⁴⁾ 동궁을 짓고 궁궐 內外諸門의 額號를 처음 정한 것은 왕 19년이었다.⁴⁵⁾ 또한 월지 목간의 작성 연대가 대개 8세기 중후반으로 경덕왕대의 것임을 참고하면,⁴⁶⁾ 우궁은 월지 주변 특정한 궁의 별칭이 분명하다. 아마 本宮에 대한 상대적인 지칭으로 생각된다. 策事門과 思易門은 월지 부근 주요 전각의 문으로 추정되고, 北宜門은 思正堂의 문으로서, 사정당의 남북 또는 동서남북의 4방에 문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에는 궁궐 내외에 분포하였을 주요 관부를 살피기로 하자. 자료의 제작 연대를 바탕으로 하면서, 『삼국사기』 직관지의 배열 순서대로 중앙 행정관부와 내정관부를 먼저 살피고, 마지막에 승려 관련 관부에 대해

-
- 41) 蘭殿은 난초 향이 나는 전각이란 뜻인데, 일반적으로 后妃의 궁전을 말한다(단국대 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 권11, p.1294). 그렇다면 비전도 이와 같다고 하겠다. 그러나 난전을 후비의 궁전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正殿일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 42) 하시모토 시게루(橋本繁), 「雁鴨池 木簡 判讀文의 再檢討」, 『新羅文物研究』 창간호(2007), p.98, p.112.
- 43) 윤선태, 「雁鴨池 出土 ‘門號木簡’과 新羅 東宮의 警備」, 『新羅文物研究』 창간호(2007), p.82에서는 東門과 開義門을 동궁의 外垣에 설치된 문, 隅宮北門과 同宮西門을 동궁 안 우궁의 內垣에 설치된 문으로 파악하였다.
- 44)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을유문화사, 1977), p.121.
- 4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4년 2월조 및 19년 추8월조.
- 46) 李基東, 「雁鴨池에서 出土된 新羅 木簡에 대하여」 『慶北史學』 1(1979);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1984). 그러나 7세기~10세기까지 폭을 넓혀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하시모토 시게루(橋本繁), 「雁鴨池 木簡 判讀文의 再檢討」, 『新羅文物研究』 창간호(2007), pp.107-108).

언급하기로 한다.

〈표 4〉 주요 관부의 명칭

| | 관부명 | 연대 | 관련 자료 |
|---|---------------|--|---|
| 1 | 禮部 | 603년 944년 | 禮府中 [제천 점말동굴 刻字] (孝恭大王) 仍命翰林學士 前守禮部侍郎 朴仁範 撰碑文也 [興寧寺澄曉大師塔碑] |
| 2 | 國學 | 687년 | 及殯國學少卿臣金△△奉教撰 [文武王陵碑] |
| 3 | 執事部 | 720년 771년 | 朝鳳闕而銜綸 則授尚舍奉御 遼雞林而曳綬 則任執事侍郎 [甘山寺阿彌陀像造像記] 副使 執事部侍郎 阿浪金體信 [聖德大王神鍾銘] |
| 4 | 執事[省] | 855년 872년 890년 890년 924년 924년 939년 954년 | 檢校使 阿干 前執事侍郎 金元弼 [昌林寺無垢淨塔願記] 執事侍郎 阿干 臣 金八元 [皇龍寺九層木塔舍利函記] 菩薩戒弟子 武州都督蘇判鑑 執事侍郎寬柔 貝江都護咸雄 全州別駕英雄 皆王孫也 [聖住寺朗慧和尚塔碑] 從弟 朝請大夫 前守執事侍郎 賜紫金魚袋 臣 崔仁滾 奉教 書 [聖住寺朗慧和尚塔碑] 始資疑於王孫韓瓘繼宗 執事侍郎金八元金咸熙 及正法大 統釋玄亮 [聖住寺朗慧和尚塔碑] 門人 朝請大夫 前守執事侍郎 賜紫金魚袋 崔仁澆篆 [鳳林 寺眞鏡大師塔碑] 大父珊珞 累官至本國執事侍郎 父確宗 歷仕至本國司兵員 外 [毘盧庵眞空大師塔碑] 和尚王父藹 元聖王之表來孫 憲康王之外庶舅 … 內知執事 侍郎外任俱江護 父詢禮 … 內至執事含香 外赴朔州長史 [太子寺朗空大師塔碑-陰記] |
| 5 | [修營奉德 寺使院] | 771년 | 檢校使 兵部令 兼 殿中令 司馭府令 修城府令 監四天王寺 府令 并 檢校眞智大王寺使 上相 大角干 臣 金邕 檢校使 肅政臺令 兼 修城府令 檢校感恩寺使 角干 臣 金 良相 [이상 聖德大王神鍾銘] |
| 6 | 兵部 | 771년 813년 872년 | 檢校使 兵部令 兼 殿中令 司馭府令 修城府令 監四天王寺 府令 并 檢校眞智大王寺使 上相 大角干 臣 金邕 [聖德大 王神鍾銘] 皇唐衛尉尉卿 國相兵部令兼修城府令 伊干 金獻貞撰 [斷俗 寺神行禪師碑] 監脩成塔事 守兵部令平章事 伊干 臣 金魏弘 上堂 前兵部大監 阿干 臣 金李臣 (하락) [皇龍寺九層木塔 |

| | | | |
|----|----------------|----------------------|---|
| | | 884년 886년 924년 | 舍利函記) 弟子 前兵部侍郎 入朝使 殿中大監 賜紫金魚袋 金彥卿書 [寶林寺普照禪師塔碑] 儒林郎 守兵部郎中 兼崇文館直學士 賜緋魚袋 臣金遠 奉教撰 [沙林寺弘覺禪師塔碑] 入朝賀正兼迎奉皇花等使 朝請大夫 前守兵部侍郎 充瑞書院學士 賜紫金魚袋 臣 崔致遠 奉教撰 [鳳巖寺智證大師塔碑] |
| 7 | 司馭府 | 771년 | 檢校使 兵部令 兼 殿中令 司馭府令 修城府令 監四天王寺府令 并 檢校眞智大王寺使 上相 大角干 臣 金邕 [聖德大王神鍾銘] |
| 8 | 修城府 | 771년 771년 813년 | 檢校使 兵部令 兼 殿中令 司馭府令 修城府令 監四天王寺府令 并 檢校眞智大王寺使 上相 大角干 臣 金邕 檢校使 肅政臺令 兼 修城府令 檢校感恩寺使 角干 臣 金良相 [이상 聖德大王神鍾銘] 皇唐衛尉卿 國相兵部令兼修城府令 伊干 金獻貞撰 [斷俗寺神行禪師碑] |
| 9 | 監四天王寺府 | 771년 | 檢校使 兵部令 兼 殿中令 司馭府令 修城府令 監四天王寺府令 并 檢校眞智大王寺使 上相 大角干 臣 金邕 [聖德大王神鍾銘] |
| 10 | [修營眞智大王寺使院]47) | 771년 | 檢校使 兵部令 兼 殿中令 司馭府令 修城府令 監四天王寺府令 并 檢校眞智大王寺使 上相 大角干 臣 金邕 [聖德大王神鍾銘] |
| 11 | 肅政臺 (肅正臺) | 771년 924년 | 檢校使 肅政臺令 兼 修城府令 檢校感恩寺使 角干 臣 金良相 [聖德大王神鍾銘] 中和辛丑年(881)…肅正史裴聿文 [鳳巖寺智證大師塔碑] |
| 12 | [修營感恩寺使院] | 771년 | 檢校使 肅政臺令 兼 修城府令 檢校感恩寺使 角干 臣 金良相 [聖德大王神鍾銘] |
| 13 | 右司祿館 | 771년 | 判官 右司祿館 使(監?) 級浪 金忠得 [聖德大王神鍾銘] |
| 14 | 倉府 | 855년 855년 872년 | 勾當修造官 前倉府史 金奇言 勾當修造官 前倉府史 金朴基 [이상 昌林寺 無垢淨塔願記] 倉府卿 一吉干 臣 金丹書 [皇龍寺九層木塔舍利函記] |
| 15 | 倉部 | 872년경48) 975년 | …知官前倉部… [興德王陵碑] 考諱容…遂起家爲倉部郎中 無何出爲長沙縣令 [高達院元宗大師塔碑] |
| 16 | 國子監 | 868년 | 前國子監卿 沙干 金中庸 [開仙寺石燈記] |
| 17 | [皇龍寺]成 | 872년 | 成典 |

| | | | |
|----|--------|--|--|
| | 典 | | 監脩成塔事 守兵部令平章事 伊干 臣 金魏弘 上堂 前兵部大監 阿干 臣 金李臣(하락) [皇龍寺九層木塔 舍利函記] |
| 18 | 南宮 | 890년 통일신라 통일신라 | 太傅王覽 謂介弟南宮相 [聖住寺朗慧和尚塔碑] '南宮之印' 명 암키와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 부지 우물 출토] '南宮之印' 명 암키와 [동천동 692-2번지 출토] |
| 19 | 夏宮 | 890년 | 旋命王孫夏宮二卿禹珪 召桂苑行人侍御使崔致遠 [聖住寺 朗慧和尚塔碑] |
| 20 | 建禮仙門 | 896년 | 爰用擇人龍於建禮仙門 舉僧象於昭玄精署 [崇福寺碑] |
| 21 | 殿中[省] | 771년 884년 | 檢校使 兵部令 兼 殿中令 司馭府令 修城府令 監四天王寺 府令 并 檢校眞智大王寺使 上相 大角干 臣 金邕 [聖德大 王神鍾銘] 弟子 前兵部侍郎 入朝使 殿中大監 賜紫金魚袋 金彥卿書 [寶林寺普照禪師塔碑] |
| 22 | 內省 | 872년 | 內省 卿 沙干 臣 金咸熙 [皇龍寺九層木塔舍利函記] |
| 23 | 翰林臺 | 771년 771년 771년 800-881 855년 863년 872년 872직후 881년 | 朝散大夫兼太子司議郎 翰林郎 金弼輿 奉教撰 [聖德大王 神鍾銘] 翰林臺 書生 大奈麻 金符口 書 [동상] 翰林郎 級浪 金弼輿 奉詔撰 [동상] 翰林 薛仲業 [高仙寺誓幢和尚碑] 翰林郎 新授秋城郡太守 臣 金立之 奉教撰 [昌林寺無垢淨 塔願記] 翰林 沙浪 伊觀 [閔哀大王石塔舍利盒記] 入唐謝恩兼宿衛判官 翰林郎 臣 崔賀 奉教撰 [大安寺寂忍 禪師塔碑] 翰林郎 △ [興德王陵碑] 侍讀 翰林才子 朴邕 [聖住寺朗慧和尚塔碑] |
| 24 | 洗宅(1) | 855년 | 專知修造官 洗宅 大奈末 行西林郡太守 金梁博 [昌林寺無 垢淨塔願記] |
| 25 | 洗宅(2) | 통일신라 | 辛番東宮洗宅 [國立慶州博物館 남측 부지 출토 청동접시] |
| 26 | 中事省(1) | 924년 944년 | 興輪寺上座釋彥琳 中事省内養金文式 卑辭厚禮 至切嘉招 [鳳林寺眞鏡大師塔碑] 仍以節子山興寧禪院 隸于中使省屬之 [興寧寺澄澗大師碑] |
| 27 | 中事省(2) | 872년 | 崇文臺郎 兼 春宮 中事省 臣 姚克一 奉教書 [皇龍寺九層 木塔舍利函記] |

| | | | |
|----|----------------------|------------------------------|---|
| 28 | 春宮 | 872년 905년 | 崇文臺郎 兼 春宮 中事省 臣 姚克一 奉教書 [皇龍寺九層木塔舍利函記] 以傳遺春宮奉食郎王輅 飛教慰問 [瑩原寺秀澈和尚塔碑] |
| 29 | 崇文臺 | 872년 887년 | 崇文臺郎 兼 春宮 中事省 臣 姚克一 奉教書 [皇龍寺九層木塔舍利函記] 崇文臺(郎) 鄭詢一 [雙谿寺眞鑑禪師塔碑] |
| 30 | 宣教省 | 884년 924년 | (迦智山)寺隸宣教省 [寶林寺普照禪師塔碑] 乃命十戒弟子 宣教省 副使 馮恕行 [鳳巖寺智證大師塔碑] |
| 31 | 崇文館 | 886년 | 儒林郎 守兵部郎中 兼 崇文館直學士 賜緋魚袋 臣 金遠 奉教撰 [沙林寺弘覺禪師塔碑] |
| 32 | 瑞書院 | 924년 | 入朝賀正兼迎奉皇花等使 朝請大夫 前守兵部侍郎 充瑞書院學士 賜紫金魚袋 臣 崔致遠 奉教撰 [鳳巖寺智證大師塔碑] |
| 33 | 北廂[典] ⁴⁹⁾ | 8세기중 후반 | 「√□□□□□□月廿一日上北廂(앞면) 「√猪水助史策一瓷一入(뒷면) [월지 목간 183호] |
| 34 | 砲石 | 나말려초 | [鮑石亭 부근 출토 암키와] |
| 35 | 蘭省 | 940년 | 大師 諱開清 俗姓金氏 辰韓 雞林人也 ... 祖守貞 蘭省爲郎 栢臺作吏 [知藏禪院朗圓大師塔碑] |
| 36 | 栢臺 | 940년 | 大師 諱開清 俗姓金氏 辰韓 雞林人也...祖守貞 蘭省爲郎 栢臺作吏 [知藏禪院朗圓大師塔碑] |
| 37 | 東宮 | 통일신라 통일신라 통일신라 944년 | 辛番東宮洗宅 [國立慶州博物館 남측 부지 출토 청동접시] 東宮 [芬皇寺址 출토 토기] 東[宮] [月城 출토 토기 조각] (眞聖大王) 特遣溟州僧正釋浦道 東宮內養安處玄等 遠降 綸言 遙祈法力 [興寧寺澄曉大師塔碑] |
| 38 | 東宮衙 | 통일신라 통일신라 | 東宮衙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출토 壺] ⁵⁰⁾ 東宮衙鑑 [月池 출토 철제 자물쇠] |
| 39 | 思正堂 | 통일신라 | 思正堂 北宜門 [月池 출토 철제 자물쇠] |
| 40 | 合零闌 | 통일신라 | 合零闌鑑 [月池 출토 철제 자물쇠] |
| 41 | 棕司 | 통일신라 | [월지 출토 목서명 토기] |
| 42 | 昭玄精署 | 896년 | 爰用擇人龍於建禮仙門 舉僧象於昭玄精署 [崇福寺碑] |
| 43 | 正法司 | 896년 | 其故波珍浪金元良所捨地利 輪轉非輕 宜委正法司 [崇福寺碑] |

47) 李泳鎬, 「新羅 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韓國史研究』 43(1983), pp.88-89.

李泳鎬, 「新羅 成典寺院의 成立」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4(1993) ; 동 개제 「성전

먼저 제천 점말동굴 입구에서 ‘禮府’명 각자가 발견되었다. 이곳에는 여러 단편적인 명문들이 있는바 구석기유적에 매몰되어 오랫동안 주목되지 못하였다. 명문의 ‘禮府’는 곧 ‘禮部’로서, 예부가 교육과 외교와 의례를 맡아본 관부였으므로, 이곳에서의 예부 또한 화랑도의 교육과 의례를 맡아보았다고 한다. 나아가 명문의 상한은 명문 A의 ‘癸亥年’에서 603년(진평왕 25)으로 비정할 수 있다고 한다.⁵¹⁾ 『삼국사기』 권38, 직관지(상)에서는 진평왕 8년(586)에 禮部 丞 2인을 두었다고 하였다. ‘部’가 ‘府’자로 쓰인 것이 다르지만, 이는 종종 통용되기도 한다.⁵²⁾ 따라서 禮府의 관독은 『삼국사기』에 등재된 신라의 가장 오랜 관부명이 문자자료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라 말기에는 별칭인 南宮이나 建禮仙門으로 쓰이기도 했다.

國學은 삼국통일 직후에 만들어진 문무왕릉비에서 확인되었다. 문무왕릉비의 건립 연대는 종래 682년으로 알려졌으나, 지금은 그보다 늦은 687년에 건립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⁵³⁾ 『삼국사기』 권38, 직관지(상)에 따르면, 국학은 禮部에 속하였으며, 신문왕 2년(682)에 설치하였다. 경덕왕이 大學監으로 고쳤으나 혜공왕이 옛 이름대로 복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868년에 건립된 개천사석등기에서 그 뒤에 國子監으로 불린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국학의 장관이 처음에는 卿이 아닌 少卿으로 확인되어 『삼국

사원의 성립과 기능』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지식산업사, 2014), pp.295-296.

- 48) 872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李基東,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中世的 側近政治의 志向-」 『歷史學報』 77(1978) ;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1984), p.240.
- 49) 하시모토 시게루(橋本繁), 「雁鴨池 木簡 判讀文의 再檢討」 『新羅文物研究』 창간호(2007), pp.96-97.
- 50) 최순조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유적 출토 신명문자료 -東宮衙銘 호 및 辛番(?)東宮洗宅銘 청동접시-」 『木簡과 文字』 10(2013).
- 51) 李道學, 「堤川 점말동굴 花郎 刻字에 대한 考察」 『충북문화재연구』 2(2009).
- 52) 倉部를 倉府로 쓴 것뿐 아니라, 習部를 ‘習府’로 표기한 예가 있다(국립경주박물관, 『文字로 본 新羅』, 2002, p.90).
- 53) 각주 19) 참조.

사기』 기록의 미비점을 보충해 주었다.⁵⁴⁾

執事部和 兵部, 倉部의 이름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각각 기밀사무, 병권, 재정을 관장한 신라의 핵심 관부였다. 禮部和 함께 ‘部’자가 붙는 4관부에 속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삼국사기』 권38, 직관지에 따르면, 집사부는 처음 稟主였다가 진덕왕 5년(651) 執事部로 개편되고, 흥덕왕 4년(829)에 執事省으로 명칭이 승격되었다고 한다. 성덕대왕신종 명문에서 ‘執事部’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차관인 典大等は 경덕왕 6년(747)에 侍郞으로 고쳤다고 하는데, 이미 성덕왕대에 ‘執事侍郞’ 칭호가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집사부는 829년에 집사성으로 승격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집사시랑은 모두 집사성의 시랑일 것이다. 한편, 병부는 법흥왕 3년(516)에, 창부는 진덕왕 5년(651)에 각각 설치되었다. 夏官二卿은 兵部の 차관인 시랑을 말하므로,⁵⁵⁾ 병부를 『周禮』에 따라 夏官이라 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司馭府, 修城府, 肅政臺, 監四天王寺府는 모두 경덕왕의 관호개혁기의 명칭으로, 『삼국사기』 권38, 직관지(상)의 기사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삼국사기』 직관지의 사료적 신빙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들 관부의 원래 명칭이 각각 乘府, 京城周作典, 司正府, 四天王寺成典임도 알게 되었다.

성덕대왕신종에 열거된 관원들의 직명은 신종 주조 시의 奉德寺成典의 구성원들이었다. 이로써 김웅과 김양상의 직명인 檢교사는 檢校奉德寺使, 관호개혁기의 관부 명칭은 修營奉德寺使院임을 밝힐 수 있다. 김웅이 檢교봉덕사사이면서 監四天王寺府令和 檢校眞智大王寺使를, 김양상이 檢교봉덕사사이면서 檢校感恩寺使인 사실에서, 奉恩寺成典과 感恩寺成典의 관호개혁기의 명칭이 각각 修營眞智大王寺使院⁵⁶⁾과 修營感恩寺

54) 李泳鎬 「新羅 國學의 成立과 變遷」 『歷史教育論集』 57(2015), p.76.

55)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III)』 (1992), p.94.

56) 각주 47) 참조.

使院임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혜공왕대에는 모두 원래의 관부명으로 돌아갔다. 872년의 皇龍寺成典은 『삼국사기』 직관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成典’이란 명칭이나 관원구성으로 보아 황룡사의 성전이 확실한데, 장관이 衿荷臣이 아닌 監修成塔事로 나타났다.

右司祿館은 左司祿官의 존재를 상징케 한다. 『삼국사기』 권38, 직관지(상)에 따르면, 左司祿官은 문무왕 17년, 우사록관은 문무왕 21년에 설치되었다. 모두 하급 관부로 監 1인, 主書 2인, 史 4인으로 구성되었다. 司祿館이 처음 이름이라면, 경덕왕의 관호개혁기에도 관부명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겠다.

『삼국사기』 권39, 직관지(중)에는 내성을 비롯하여 110여 개의 내정관부가 열거되어 있다. 이 가운데 문자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內省, 殿中省, 翰林臺, 洗宅, 中事省, 崇文臺, 北廂典, 東宮衙 등이다.

먼저 궁정의 일을 총괄하는 內省은, 경덕왕 18년(759)에 殿中省으로 고쳤다가 후에 옛 이름으로 복고하였다. 私臣은 1명으로 경덕왕이 殿中省으로 고쳤으나 후에 다시 사신으로 복고하였다.⁵⁷⁾ 전중성과 전중령이 각각 內省과 私臣으로 복고된 것은 혜공왕 12년인데,⁵⁸⁾ 관호개혁기의 장관 명칭인 殿中省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시 관부명은 殿中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혜공왕대 복고된 관부명은 872년에도 內省으로 쓰였으나, 884년에는 다시 전중성으로 사용되었다.

翰林臺, 崇文臺, 崇文館, 宣敎省, 瑞書院 등은 국왕 측근의 문한기구였다. 이 가운데 『삼국사기』 권38, 직관지(중)에 등장하는 관부는 翰林臺, 崇文臺 뿐이며, 나머지 관부는 문자자료에서 처음 확인된 것이다. 이상의 관부에 대해서는 이기동의 상세한 연구가 참고 된다.⁵⁹⁾ 『삼국사기』 직관

57) 『삼국사기』 권38, 직관(중) 內省.

58)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의 變革」 『社會科學』 2(1958) ; 『新羅政治社會史研究』(일조각, 1974).

59) 李基東, 「羅末麗初 近待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1984).

지에 따르면, 詳文師를 성덕왕대에 通文博士로 고치고, 경덕왕이 다시 翰林으로 고쳤으며, 뒤에 學士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성덕대왕신종 명문에서 경덕왕과 혜공왕대 관부의 이름은 翰林臺이며, 관원으로 郎, 待詔, 書生 등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⁶⁰⁾ 瑞書院은 동 직관지에서 언급이 없다. 이는 翰林臺의 후신으로, 880년대에 이르러 서서원으로 개편되었다고 한다. 學士, 直學士가 설치되었다.⁶¹⁾

崇文臺는 郎 2인, 史 4인, 從舍知 2인의 관부였다. 이는 崇文館과 같은 관부로 추정된다.⁶²⁾ 승문대의 설치시기는 기록이 없지만, 경덕왕대로 보는 견해가 있다.⁶³⁾ 宣敎省 또한 『삼국사기』 직관지에 기재된바 없다. 그러나 가지산 보림사를 선교성에 예속시킨 것을, 882년 헌강왕이 흥령선원을 중사성에 예속시킨 것에 비기어, 선교성을 中事省과 비슷한 국왕 직속의 관부로서, 敎書(詔書)를 선포하는 관부로 파악하고 있다.⁶⁴⁾

洗宅은 『삼국사기』 직관지(중)에 두 군데 나타나 있다. 內省 산하 大舍 8인, 從舍知 2인의 洗宅과 東宮官 산하 大舍 4인, 從舍知 2인의 洗宅이 그것이다. 전자는 국왕 직속의 세택, 후자는 동궁 관아의 세택이다.⁶⁵⁾ 여기서는 전자를 세택(1), 후자를 세택(2)로 표기하였다. 전자의 설치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후자보다는 빨랐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진평왕 44년 설이 제기되었다.⁶⁶⁾ 국왕 직속의 세택은 경덕왕대 中事省으로 변경되었다가 뒤에 복고되었다. 물론 복고 시점은 혜공왕 12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궁 직속 세택의 사례를 보면, 하대에는 다시 중사성으로 개칭된 듯하다.

60) 이기동, 같은 논문, p.248.

61) 이기동, 같은 논문, p.254.

62) 이기동, 같은 논문, p.255.

63)李文基 「新羅의 文翰機構와 文翰官」 『歷史敎育論集』 21(1996).

64)李基東, 「羅末麗初 近待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新羅 骨制品社會와 花郎徒』(1984), p.241.

65) 이기동, 같은 논문 p.234.

66)李文基 「新羅 洗宅(中事省)의 機能과 官制의 位相의 變化」 『歷史敎育論集』 51(2013), p.304.

北廂典은 大舍 2인, 史 4인으로 구성된 관부였다. 월지 목간에 보이는 北廂이 北廂典을 가리킴이 확실하다면, 세택과 함께 『삼국사기』에 나타난 내정관부를 목간에서 또 하나 확인하였다고 하겠다.⁶⁷⁾

포석정 부근에서 ‘砲石’ 명문기와가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鮑石亭이 砲石亭으로도 쓰였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포석정과 같은 亭子가 하나만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남산 주변 절경지에 이 같은 정자와 이를 관리하는 관부가 여럿 존재한 사실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삼국사기』 권39, 직관지(중)에서는 내성 관하의 관부로 靑淵宮典, 夫泉宮典, 且熱音宮典, 坐山典, 屏村宮典의 5宮典을 열거하고, 이어서 北吐只宮典과 弘峴宮典, 葛川宮典, 善坪宮典, 伊同宮典, 平立宮典의 6궁전을 기록하였다. 靑淵宮典 등 5궁전은 大舍 2인, 史 2~4인, 宮翁 1인으로 구성되었고, 北吐只宮典을 비롯한 나머지 궁전들은 모두 大舍 2인, 史 2인으로만 되어 있다.⁶⁸⁾ 이로 보아 전자가 후자보다 격이 높았던 듯하다.

이 가운데 靑淵宮典과 屏村宮典이 경덕왕대에 각각 造秋亭과 玄龍亭으로 개명된 사실이 주목된다. 신라에 궁으로도 일컬어진 여러 정자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둘만 경덕왕대의 개명 사실을 남긴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당시에는 이들 정자만 존재했기 때문이었을까? 『삼국사기』 직관지의 자료가 한 시기의 일괄자료이고,⁶⁹⁾ 坐山典도 실은 坐山宮典의 ‘宮자’가 탈락된 것이라면,⁷⁰⁾ 나머지 宮典들도 경덕왕대에 某某亭으로 개명되지 않았을까? 현강왕은 포석정에 행차하여 신하들과 연회하였고,⁷¹⁾ 진성여왕대의 화랑 효종량은 남산 포석정에 놀러 나갔다가 貧

67) 北廂殿의 職掌은 미상인데, ‘廂’자에 결채라는 뜻이 있다고 하여 ‘북쪽에 설치한 왕궁의 결채를 관리하는 관부’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 李仁哲, 『新羅 內廷官府의 組織과 運營』 『新羅政治制度史研究』(일지사, 1993), p.67.

68) 『삼국사기』 권39, 직관(중).

69) 三池賢-, 『新羅內政官制考(上)』 『朝鮮學報』 61(1971), p.9에서는 중대 말인 혜공왕 12년(776) 이후 그리 멀지 않은 시기의 것으로서 애장왕 7년(806) 이전의 어느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70) 정구복 외,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주석편 하)(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p.526.

女(知恩)의 딱한 사정을 들었다.⁷²⁾ 또한 경애왕은 妃嬪宗戚들과 함께 鮑石亭에서 연회를 베풀다가 견훤의 기습공격을 받았다.⁷³⁾ 포석정의 설치 시기를 알 수 없음이 유감이지만, 위의 궁전 가운데는 포석정을 관리하는 궁전이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삼국사기』 직관지(중)에는 東宮官 산하 내정관부로 東宮衛, 御龍省, 洗宅, 給帳典, 月池典, 僧房典, 庖典, 月池嶽典, 龍王典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들 9개 관부 가운데 東宮衛와 洗宅이 확인되었다. 동궁은 春宮라고도하는데, 태자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東宮衛는 동궁에 설치된 관아일 것이다. 『삼국사기』 직관지(중)에 따르면, 東宮衛는 경덕왕 11년(752)에 설치하였으며, 上大舍 1인, 次大舍 1인이 있었다고 한다. 신라본기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경덕왕 11년 8월에 東宮衛官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관부인 東宮衛와 관원인 上大舍 1인, 次大舍 1인의 정확한 설치시기를 알게 되었다고 하겠다.

동궁 소속 세택(2)은 大舍 4인, 從舍知 2인으로, 세택(1)보다 大舍의 수만 적다. 관부의 설치시기를 알 수 없으나, 경덕왕 11년(752) 8월에 東宮衛官을 둘 때 함께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⁷⁴⁾ 그렇다면 국왕 직속의 세택(1)처럼 경덕왕 18년에 중사성으로 고쳤다가 혜공왕대에 복고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872년 요극일의 사례는 복고된 세택이 다시 중사성으로 개칭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동궁 소속 세택의 관호 변경 사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세택은 국왕 측근의 侍從·文翰機構라는 것이 학계의 통설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는 9세기 중후반의 일이며, 그전에는 궁중 雜役을 담당한 관부였다고 보았다.⁷⁵⁾ 또한 국왕 직속 세택(1)과 동

71) 『삼국유사』 권2, 기이2, 처용랑 망해사.

72) 『삼국유사』 권5, 효선9, 貧女養母.

73)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경애왕 4년 9월조 및 권50, 열전 견훤.

74) 李基東,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1984), p.234.

궁 직속 세택(2)을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전제하고, 마치 후자가 전자의 축소판인 것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동궁에 설치된 세택은 처음부터 국왕 직속의 그것과 설치 목적이나 기능에서 구별되었거나, 하대까지도 궁정의 일상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⁷⁶⁾

한편, 관부명은 蘭省과 栢臺처럼 별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蘭省은 당 秘書省의 별칭이었다.⁷⁷⁾ 비서성은 經籍圖書의 임무를 관장하였으며, 당 고종 용삭 2년(662) 蘭臺監으로 개칭되었다. 이기동은 이에 해당하는 신라 관부를 崇文臺로 보고 김수정이 역임한 관직을 崇文臺郎으로 보았다.⁷⁸⁾ 栢臺는 漢代에 설치된 御史臺의 별칭이었다.⁷⁹⁾ 이는 고려의 어사대, 조선의 사헌부에 해당되는데, 신라에서는 司正府(肅正臺)에 비정할 수 있겠다.

思正堂과 合零闡(闡?), 棟司는 문헌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사정당에 동서남북의 4문이 있었다면, 이는 큰 전각으로 위상이 높은 건물이었을 것이다. 合零闡은 東宮衛와 함께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어 주요 전각의 문으로 보이며, 棟司는 倉庫를 관리하는 관부로 추측된다.⁸⁰⁾

政法司와 昭玄精署는 승려의 관리를 담당하는 관부였다. 정법사는 『삼국사기』 권40, 직관지(하) 武官 조 말미에 政官 또는 政法典이라 하여, 처음 大舍 1인과 史 2인을 두었다고 한 그 관부를 뜻한다고 하겠다. 원성왕 원년에 이르러 처음 승관을 두었고, 승려 중에서 재주와 덕행이 있는 자

75)李文基 「안압지 출토 木簡으로 본 新羅의 洗宅」 『韓國古代史研究』 65(2012), p.197.
 李文基 「新羅 洗宅(中事省)의 機能과 官制의 位相의 變化」 『歷史教育論集』 51(2013), p.315.
 76) 홍기승, 「경주 월성해자·안압지 출토 신라목간의 연구 동향」 『木簡과 文字』 10(2013), p.111.
 77) 『漢韓大辭典』 권11, p.1291.
 78) 李基東, 「羅末麗初 近待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新羅 骨制品社會와 花郎徒』(1984), p.256.
 79) 『漢韓大辭典』 권7, p.149.
 80) 국립경주박물관, 『문자로 본 신라』(2002), p.295.

로써 충당하였다. 사고가 있으면 교체하였으나 연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正法大德, 正法大統, 判政法事, 政法和尚 등의 이름이 하대 금석문에 많이 나타난다. 昭玄精署는 북위의 昭玄寺에 大統과 統과 維那를 두어 모든 州와 郡縣의 沙門을 관할하게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昭玄僧, 昭玄大德, 昭玄大統 등의 이름이 나말려초 금석문에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금석문, 목간 등에서 여러 관부를 찾을 수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거의 대부분 관청의 위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監四天王寺府와 修營感恩寺使院, 皇龍寺成典, 鮑石亭은 오늘날 사천왕사지와 감은사지, 황룡사지, 포석정지가 전하므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월지 출토 유물에서 확인된 관부는 대체로 월지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짐작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는 형편이다.

IV. 왕경의 사찰

신라는 불교의 나라였다. 불교는 국교로서 국왕을 비롯하여 귀족, 평민, 노비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봉하는 종교였다. 따라서 사원은 종교 시설인 동시에 국가 및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었다. 『삼국사기』에 전하는 불교 사원은 적지만, 『삼국유사』에서는 많은 수의 사원과 승려 및 신자들에 대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문자자료에서 이름이 확인된 사원은 70곳 정도인데, 같은 사원을 제외하면 대략 40여 개소의 사원을 헤아릴 수 있다. 서술의 편의상 금문·석문·고문서, 기와·토기 명문 등의 두 부류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금문 · 석문 · 고문서에 나타난 왕경 사찰

| 사원 | 연대 | 관련 기사 |
|----|-------|---|
| 1 | 大王寺 | 534년 甲寅大王寺中 安藏 許作 [蔚州 川前里書石-甲寅銘] |
| 2 | 神仙寺 | 7세기말 仍於山巖下 創造伽藍 巨靈虛名神仙寺 [斷石山神仙寺造像銘記] |
| 3 | 甘山寺 | 719년 敬造甘山寺一所 石阿彌陀像一軀 石彌勒像一軀 [甘山寺彌勒菩薩像造像記] |
| 4 | 皇龍寺 | 755년 願旨者 皇龍寺緣起法師爲內賜 [新羅白紙墨書華嚴經寫經 跋文] 801년 …皇龍寺]…… [鑿藏寺阿彌陀如來造像碑] 827년 節州統 皇龍寺恒昌和上 [中初寺幢竿石柱記] 833년 節州統 皇龍寺覺明和上 [蓮池寺鐘銘] 867년 壇師 皇龍寺僧賢炬 [鷲棲寺蠟石舍利函記] 872년 詳夫皇龍寺九層塔者 善德大王代之所建也 [皇龍寺九層木塔舍利函記] |
| 5 | 奉聖寺 | 766년 永泰二年七月一(?)△…北方奉聖寺也(?) [永泰二年銘 蠟石製平鏡] |
| 6 | 四天王寺 | 771년 檢校使 兵部令 兼 殿中令 司馭府令 修城府令 監四天王寺府令 并 檢校眞智大王寺使 上相 大角干 臣 金邕 [聖德大王神鍾銘] 890년 四天王寺 上座 釋慎符 [聖住寺朗慧和尚塔碑] |
| 7 | 感恩寺 | 771년 檢校使 肅政臺令 兼 修城府令 檢校感恩寺使 角干 臣 金良相 [聖德大王神鍾銘] 872년 感恩寺都維那 僧芳另 僧連嵩 [皇龍寺九層木塔舍利函記] |
| 8 | 眞智大王寺 | 771년 檢校使 兵部令 兼 殿中令 司馭府令 修城府令 監四天王寺府令 并 檢校眞智大王寺使 上相 大角干 臣 金邕 [聖德大王神鍾銘] |
| 9 | 零妙寺 | 8세기말 媠者零妙寺言寂法師在跡 [葛項寺石塔記] |
| 10 | 令妙寺 | 804년 上坐 令妙寺日照和上 [禪林院鍾銘] |
| 11 | 穴寺 | 800-808년 移居穴寺 [高仙寺誓幢和尚碑] 以垂拱二年 三月卅日 終於穴寺 [동상] 穴寺堂東 近山 慈改□□恒□ [동상] |
| 12 | 高仙寺 | 800-808년 此□高仙寺 大師房前 小池是也 [高仙寺誓幢和尚碑] |
| 13 | 奉德寺 | 800-808년 有奉德寺 大德法師 三藏神將 [高仙寺誓幢和尚碑] 810년 壬午年 京 奉德寺 永興寺 天嚴寺 寶藏寺 施食二千七百十三石 [仁陽寺碑] 885년 檢校修造僧 前奉德寺上座 清玄 [昌林寺無垢淨塔願記] |

| | | | |
|----|------|---------------|---|
| 14 | 鑿藏寺 | 801년 | 鑿藏寺者… [鑿藏寺阿彌陀如來造像碑] |
| 15 | 永興寺 | 810년 | 壬午年 京 奉德寺 永興寺 天巖寺 寶藏寺 施食二千七百十三石 [仁陽寺碑] |
| 16 | 天巖寺 | 810년 1038년 | 壬午年 京 奉德寺 永興寺 天巖寺 寶藏寺 施食二千七百十三石 [仁陽寺碑] 伯士 大匠天巖寺(然) [불국사 석가탑 유물 2-重修文書] |
| 17 | 寶藏寺 | 810년 | 壬午年 京 奉德寺 永興寺 天巖寺 寶藏寺 施食二千七百十三石 [仁陽寺碑] |
| 18 | 普門寺 | 872년 883년 | 普門寺 上座 僧隱田 [皇龍寺九層木塔舍利函記] 時有普門寺 玄如大德 [仲和三年銘 金銅舍利器記] |
| 19 | 禪房寺 | 879년 | 乾符六年己亥五月十五日 禪房寺塔練治內記 [禪房寺塔誌石] |
| 20 | 興輪寺 | 884년 924년 | 興輪寺僧釋賢暢刻字 [寶林寺普照禪師塔碑] 興輪寺 上座 釋彥琳 中事省 內養 金文式 [鳳林寺眞鏡大師塔碑] |
| 21 | 大皇龍寺 | 887년 | 仍貫籍于大皇龍寺 [雙谿寺眞鑑禪師塔碑] |
| 22 | 大興輪寺 | 890년 | 仍編錄大興輪寺 [聖住寺朗慧和尚塔碑] |
| 23 | 鵠寺 | 896년 1024년 | 先朝所建鵠寺 宜易榜爲大崇福 [崇福寺碑] 鵠寺主布一疋 [불국사 석가탑 유물 2-重修文書] |
| 24 | 崇福寺 | 896년 | 金城之隴 日觀之麓 有伽藍號崇福者 [崇福寺碑] |
| 25 | 大崇福寺 | 896년 | 有唐新羅國 初月山 大崇福寺 碑銘 并序 [崇福寺碑] 先朝所建鵠寺 宜易榜爲大崇福 [동상] |
| 26 | 奉恩寺 | 896년 | 一依奉恩故事(奉恩寺乃聖祖大王奉爲眞智大王追福所建故取爲則) [崇福寺碑] |
| 27 | 芬皇寺 | 896년 924년 | 願興佛事 因請芬皇寺僧崇昌 [崇福寺碑] 芬皇寺釋慧江書并刻字 [鳳巖寺智證大師塔碑] |
| 28 | 東泉寺 | 941년 | (자적선사) 住持於東泉寺 趨觀於北闕中 [境清禪院慈寂禪師塔碑] |
| 29 | 實際寺 | 954년 | 至貞明元年春 大師遽携禪衆 來至帝鄉 依前命南山實際寺安之 [太子寺朗空大師塔碑] |
| 30 | 芬皇寺 | 994년 | 時 新羅景哀大王 請住芬皇寺 賜紫羅屈胸·梅香·寶器等物 [葛陽寺惠居國師塔碑] |
| 31 | 靈廟寺 | 994년 | 天成四年 敬順大王 命師移住靈廟寺法席 築戒壇飾佛塔 設法會七日 [葛陽寺惠居國師塔碑] |

| | | | |
|----|-------|-------|--|
| 32 | 佛國寺 | 1024년 | 月舍山瑜伽(業)(<u>仏</u>)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 [불국사 석가탑 유물 2-重修文書] |
| | | 1038년 | (月舍)山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동상] |
| | | 1038년 | <u>仏</u> 國寺(塔)[重修]布施名公衆僧小名記 [동상] |
| 33 | 石佛寺 | 1038년 | 石仏寺彦應上大四斗 [불국사 석가탑 유물 2-重修文書] |
| 34 | 奉德太宗寺 | 통일신라 | [奉]德太宗寺 ⁸¹⁾ [皇福寺碑片] |
| 35 | 奉聖神忠寺 | 통일신라 | [奉]聖神忠寺令伊 ⁸²⁾ [皇福寺碑片] |
| 36 | 大寺 | 통일신라 | 大寺无盡 [경주 동천동유적 부근 출토 청동용기] |

위에 나타난 왕경 사찰 가운데 四天王寺, 奉聖寺, 感恩寺, 奉德寺, 奉恩寺(眞智大王寺), 靈廟寺, 永興寺, 皇龍寺 등의 성전사원과, 甘山寺, 芬皇寺, 佛國寺, 石佛寺, 穴寺, 高仙寺, 興輪寺, 鑿藏寺, 崇福寺(鵠寺), 天嚴寺, 東泉寺 등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神仙寺, 寶藏寺, 普門寺, 禪房寺, 實際寺, 大寺 등은 처음 나타난 사원들이다.

먼저 ‘甲寅大王寺’에서 大王寺를 법흥왕대의 사원으로 본다면, 원래의 사원명은 [法興]大王寺였을 것이다.⁸³⁾ 진흥왕이 大王興輪寺로 사액하였지만,⁸⁴⁾ 실은 [法興]大王興輪寺였다고 추정된다.⁸⁵⁾ 그러나 뒤에는 줄여서 興輪寺로 칭했고, 신라 말기에는 大興輪寺로도 불려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皇龍寺는 진흥왕이 창건한 사원이었다. 월성 동쪽에 新宮을 지으려 하다가 황룡이 나타나자 불사로 바꾸어 완성하였다. 왕 14년인 553년에 건립을 시작하여 566년에 낙성하고,⁸⁶⁾ 569년에는 담장까지 완성하였다.⁸⁷⁾

81) 尹善泰,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韓國史研究』 108(2000), p.10의 판독 참조.

82) 尹善泰, 같은 논문, p.7의 판독 참조.

83) 李泳鎬, 「팔공산 ‘夫人寺’의 탄생」 『嶺南學』 62(경북대, 2017), p.328.

84) 『삼국유사』 권3, 흥법3, 원종흥법 위촉명신.

85) 李泳鎬, 「팔공산 ‘夫人寺’의 탄생」 『嶺南學』 62(2017), p.327.

신라 三寶 가운데 장육상과 9층탑의 두 가지나 있어서 그 비중이 매우 컸다. 특히 하대에는 지방의 사원에 州統을 과견하였고, 신라 말기에는 大皇龍寺로 불렸다.

崇福寺의 처음 이름은 鶴寺였다. 원성왕이 돌아가자 그의 園陵을 조성하면서 鶴寺가 추복 장소로 지정되었다. 이에 처음 자리를 떠나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그 후 70여 년간 짙은 큰 형세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경문왕이 즉위하면서 중수하기 시작, 헌강왕 11년(885)에 숭복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숭복사를 大崇福寺라고 한 것으로 보아, ‘大’자를 冠稱한 흥륜사, 황룡사 등과 함께 매우 중시된 사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현상인 듯, 고려 초에는 다시 鶴寺라 하였다.

奉恩寺의 처음 이름은 眞智大王寺였는데, 이는 숭복사 비문의 세주에서 추론할 수 있다.⁸⁸⁾ 진지왕은 중대 왕실의 시조인바⁸⁹⁾ 봉은사는 곧 그를 추복하는 사찰이었다. 혜공왕대 초에 사원 건립을 시작하여 원성왕대에 완공되었다.⁹⁰⁾ 완성 후 봉은사로 칭해졌지만, 그 과정에서 ‘奉恩眞智大王寺’나 ‘眞智大王奉恩寺’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후술할 奉德寺나 奉聖寺의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흥왕이 창건한 大王寺의 명칭이 法興大王寺로 추정된다거나, 경덕왕이 부왕인 성덕대왕을 위해 만든 종이 聖德大王神鍾이었다는 사실과도 맥이 통한다.

零妙寺와 습妙寺는 같은 사원으로, 선덕여왕이 창건한 靈廟寺가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靈廟寺란 사원의 명칭으로 보아 원당사원임이 분명한 데⁹¹⁾ 이를 靈廟寺로 쓰지 않은 것은 우선 획수가 복잡했기 때문일 것이

86)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4년조.

87) 『삼국유사』 권3, 탑상4, 皇龍寺丈六.

88) 李泳鎬, 「新羅 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韓國史研究』 43(1983), p.86.

이영호, 「성전사원의 성립과 기능」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2014), pp.329-330.

89)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 『歷史學報』 53·54합집(1976) :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1984), pp.204-206.

90) 李泳鎬, 「新羅 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韓國史研究』 43(1983), p.86.

이영호, 「성전사원의 성립과 기능」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2014), p.296.

다. 그러나 이들 표기가 선덕여왕대와는 시대가 상당히 떨어진 下代의 자료라는 점에서, 원당사찰로서의 기능이 퇴색되었던 데도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고려 초에는 정식명칭인 靈廟寺로 쓰기도 하였다.

感恩寺는 문무왕 말년에 창건되기 시작하여 신문왕 2년에 완성되었다.⁹²⁾ 감은사란 이름은 사원이 완성되고 난 뒤에 확정된 이름이었을 것이다. 흥륜사나 봉은사의 예를 참고하면, 문무왕이 처음 사원을 창건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딴 ‘文武大王寺’로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신문왕이 즉위 초 부왕인 문무왕을 위해 사원을 완성했을 무렵에는 ‘感恩文武大王寺’나 ‘文武大王感恩寺’라 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러다가 感恩寺로 정착되었는데, 이제 신문왕이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을 구태여 밝히지 않아도 될 만큼 널리 알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傳 皇福寺址에서 ‘奉德太宗寺’와 ‘奉聖神忠寺’ 비편이 발견된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 奉德太宗寺, 奉聖神忠寺는 각각 태종과 신충을 봉안한다는 의미로서, 뒷날의 奉德寺와 奉聖寺를 말할 것이다.⁹³⁾ 이는 봉덕사와 봉성사가 처음 태종무열왕과 신충을 위해 창건되었다는 문헌 기록과 일치한다.⁹⁴⁾ 황복사비가 신라 하대에 건립되었다고 한다면,⁹⁵⁾ 이러한 표기는 사원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신문왕대의 信忠을 神忠으로 잘못 표기한 데서도 이러한 사정을 살필 수 있다.⁹⁶⁾

91) 李泳鎬, 「新羅 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韓國史研究』 43(1983), p.103.
 이영호, 「성전사원의 성립과 기능」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2014), p.330.
 92) 『삼국유사』 권2, 기이2, 萬波息笛.
 93) 尹善泰,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韓國史研究』 108(2000), pp.6-10.
 94) 『삼국유사』 권2, 기이2, 聖德王. 동 권5, 神呪6, 惠通降龍.
 95) 김창겸, 「신라시대 김유신의 興武大王 추봉과 '新金氏」 『新羅史學報』 18(2010), p.43.
 96) 尹善泰,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韓國史研究』 108(2000), p.15에서는 神忠이 信忠보다 정확한 이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비석의 건립 시기가 하대임을 고려하면 따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奉聖寺의 처음 이름은 信忠奉聖寺였다.⁹⁷⁾ 또한 興輪寺는 大王興輪寺, 곧 [法興]大王興輪寺라 불렀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사원의 이름을 ‘봉안 인물’+‘절 이름’+寺의 순으로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봉덕사와 봉성사는 ‘절 이름’+‘봉안 인물’+寺의 순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어느 한쪽이 옳은 것이 아니라,⁹⁸⁾ ‘절 이름’과 ‘봉안 인물’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었다고 해석된다.⁹⁹⁾

802년 창녕 인양사 출신의 한 승려가 왕경의 奉德寺, 永興寺, 天嚴寺, 寶藏寺에 곡식 2,700석을 시주하였다. 그 승려에 대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지역 富豪層이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¹⁰⁰⁾ 따라서 지역 富豪層의 왕경 사찰 지원이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는 왕경의 金入宅 가운데 望水宅과 里上宅이 장흥 寶林寺의 불사를 위해 金 160分과 租 2천 斛을 시납하였다는가, 北宅의 기진으로 합천 伯嚴寺가 창건된 사실에서도 뒷받침된다.¹⁰¹⁾ 그러나 승려가 이렇게 많은 곡식을 시주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왕경의 4곳 사원 가운데 寶藏寺는 위치와 연혁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비해 봉덕사와 영흥사는 잘 알려져 있고, 天嚴寺의 경우 애장왕대 皇龍寺僧인 正秀가 三郎寺에서 돌아오다 天嚴寺 문밖을 지났다는 이야기에서¹⁰²⁾ 황룡사 동편 어느 사찰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불국사 중수문서에서 天嚴寺 소속 大匠을 확인함으로써 1028년까지는 사원이

97) 『삼국유사』 권5, 神呪6, 惠通降龍.
 98) 윤선대는 비석을 증시한 나머지 『삼국유사』의 信忠奉聖寺를 奉聖信忠寺의 訛傳으로 이해하였다. 尹善泰,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韓國史研究』 108(2000), p.10.
 99) 영묘사는 처음 이름 善德大王寺에서 ‘善德大王靈廟寺’나 ‘靈廟善德大王寺’로 불렀고, 흥륜사도 法興大王寺에서 [法興]大王興輪寺’나 ‘興輪法興大王寺’로 불렀다고 여겨진다. 또한 봉성사와 봉덕사도 각각 信忠寺 → 信忠奉聖寺 또는 奉聖信忠寺 → 奉聖寺로, 太宗大王寺 → 太宗奉德寺 또는 奉德太宗寺 → 奉德寺로 호칭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100) 하일식, 「昌寧 仁陽寺碑文의 研究」 『韓國史研究』 95(1996).
 101) 李基東, 「新羅 金入宅考」 『震檀學報』 45(1978) :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1984), pp.204-206.
 102) 『삼국유사』 권5, 감통7, 正秀師 救米女.

존재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實際寺는 남산에 있던 사찰이다. 『삼국사기』에서는 實際寺가 진흥왕 27년(566) 2월에 祇園寺와 함께 창건되었다고 하며,¹⁰³⁾ 무열왕 때에는 사랑부인 驥徒가 출가하여 道玉이란 이름으로 머물다가 조천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고 한다.¹⁰⁴⁾ 또한 경덕왕 때에는 덕행이 높은 迎如라는 스님이 주석하다 國師에 추봉되었다.¹⁰⁵⁾ 그러나 이어지는 비문에서는 신덕왕이 潛邸 시 거쳐하던 집을 즉위 후 절로 만들어 朗空大師 行寂에게 맡겨 길이 禪于로 쓰게 하였다고 한다.¹⁰⁶⁾ 이로 보면 진흥왕대 낙성된 실제사와 신덕왕대의 실제사는 서로 다른 사원이라고 하겠다.¹⁰⁷⁾

한편, ‘大寺’명 청동용기 명문은 ‘大寺 元盡’으로 읽어 사찰과 관련된 인명으로 추측하지만,¹⁰⁸⁾ 여기서는 ‘大寺 无盡’으로 읽었다. 大寺는 無窮 無盡하다는 뜻이다. 大寺는 고유명사일 수도 있고,¹⁰⁹⁾ 흥륜사, 황룡사 등을 가리키는 일반 보통명사일 수도 있다. 불국사와 석불사는 유명함에 비해 신라시대의 문자자료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겨우 ‘石佛’명 기와 1점이 발견된 정도인데, 그간 몇 차례 불국사와 석불사(석굴암)에 대한 정비수리가 행해졌으나, 절터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 점에서 불국사와 석불사의 이름이 고려 초의 불국사 중수문서에서 확인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기와나 토기 명문에서 확인되는 사찰명이다.¹¹⁰⁾ 크게 보아 사

103)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27년조.

104) 『삼국사기』 권47, 열전 취도.

105) 『삼국유사』 권5, 피은8, 영여사.

106) 「봉화 태자사 낭공대사탑비」 “此寺則先是聖上 以黃閣潛龍 禪扃附鳳 尋付大師 永爲禪宇”.

107) 『東史綱目』 제5하 경애왕 4년 11월조에 기원사와 실제사가 포석정 東西로 위치하였다고 한 데서 실제사의 대체적인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108) 국립경주박물관, 『文字로 본 新羅』(2002), p.318.

109) 大寺의 예로서 904년의 ‘松山村 大寺’가 있다(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松山村大寺鍾銘」 『역주 한국고대금석문(III)』, 1992, p.401). 그러나 이곳 大寺와의 관련성은 알 수 없다.

110) 국립경주박물관 慶州世界文化엑스포조직위원회, 『新羅瓦塼』(2000) ; 국립경주박물관, 『文字로 본 新羅』(2002)를 바탕으로 하되, 최근의 성과는 아래 논문을 참고하였다.

찰명의 앞부분만 새긴 명문과 ‘寺’자까지 포함한 명문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전자를 먼저 제시한 뒤에 후자와 함께 살펴하기로 하자.

〈표 6〉 기와 · 토기 명문에 나타난 왕경 사찰

| | 사원 | 연대 | 관련 자료 |
|----|--------|--------------|--|
| 1 | 王福 | 통일신라 | [전 皇福寺址 지표 수습 암키와] ¹¹¹⁾ |
| 2 | 皇福 | 통일신라 | [전 皇福寺址 지표 수습 암키와] ¹¹²⁾ |
| 3 | 芬王 | 통일신라 | [芬皇寺 동편 ‘구황동 원지유적’ 출토 인각 토기] ¹¹³⁾ |
| 4 | 天柱 | 통일신라 | [天柱寺址 출토 암키와] |
| 5 | 昌林 | 통일신라 | [昌林寺址 출토 수키와] |
| 6 | 味吞 | 통일 초 | [皇龍寺址 남측 미탄사지 출토 기와] ¹¹⁴⁾ |
| 7 | 石佛 | 통일신라 | [石佛寺<石窟庵> 출토 수키와] |
| 8 | 三郎 | 통일신라 | [三郎寺址 출토 암키와] |
| 9 | 遠願 | 통일신라 | [遠願寺址 출토 암키와] |
| 10 | 天王 | 통일신라 | [四天王寺址 회랑 외곽 출토 기와] |
| 11 | 天王寺 | 통일신라 | [四天王寺址 회랑 외곽 출토 기와] |
| 12 | 四天王 | 통일신라 | [四天王寺址 금당지 주변 출토 암키와] ¹¹⁵⁾ |
| 13 | 四天王寺 | 통일신라 | [四天王寺址 출토 암키와] |
| 14 | 皇龍 | 통일신라 | [皇龍寺址 출토 암키와] |
| 15 | 皇龍寺 | 통일신라 | [皇龍寺址, 菩提寺址, 鮑石亭址 등 출토 암키와] |
| 16 | 大皇[龍寺] | 통일신라 | 大皇[△△] [芬皇寺址 출토 암키와] ¹¹⁶⁾ |
| 17 | [皇]籠寺 | 나말여초 | △籠寺 [皇龍寺址 출토 암키와] |
| 18 | 東寺 | 통일신라 | [掘佛寺址 출토 암키와] |
| 19 | 昌林寺 | 통일신라 나말여초 | [天官寺址 출토 수키와] ¹¹⁷⁾ 昌林寺瓦草 [창림사지 출토 기와] |
| 20 | 普門寺 | 통일신라 | [普門寺址 출토 암키와] |
| 21 | 永興寺 | 나말여초 | 永興寺 [보령 천방유적 출토 암키와] 永興寺送瓦草重創 [보령 천방유적 출토 암키와] |
| 22 | 興輪寺 | 통일신라 | [(大)王]興[輪(寺)] [추정 흥륜사지(경주공고) 출토 수키와] ¹¹⁸⁾ |

柳煥星, 「慶州 출토 羅末麗初 寺刹銘 평기와의 변천과정」 『新羅史學報』 19(2010).
柳煥星, 「慶州 出土 統一新羅時代 寺刹銘 기와의 檢討」 『新羅學研究』 19(위덕대, 2016).

| | | | |
|----|-------|---------------|--|
| 23 | 感恩寺 | 통일신라 | [感恩寺址 출토 암키와] ¹¹⁹⁾ |
| 24 | 栢栗寺 | 고려시대 | [皇龍寺址 서쪽 쌍탑지 중 서탑 부근 출토 암키와] |
| 25 | 四祭寺 | 통일신라 | [탑동 남산 식혜곡 출토 수키와] |
| 26 | 靈廟之寺 | 통일신라 | [靈廟寺址(현 천경림 흥륜사) 출토 암키와] |
| 27 | 大令妙寺 | 통일신라 나말여조 | 大令妙寺 ¹⁾ 명 암키와 [靈廟寺址(현 천경림 흥륜사) 출토 기와] 大令妙寺造瓦 ²⁾ 명 암키와 [靈廟寺址(현 천경림 흥륜사) 출토 기와] |
| 28 | 奉聖[寺] | 통일신라 | 大伯土奉聖... [益山 彌勒寺址西石塔 출토 小壺片] ¹²⁰⁾ |
| 29 | 道仲寺 | 통일신라 | 道仲 '寺'명 암막새 [진 仁容寺址 출토 암막새] ¹²¹⁾ |
| 30 | 密谷之寺 | 통일신라 | [강동면 왕신리 310번지 출토 기와] |
| 31 | 万正之寺 | 통일신라 | [구황동 목탑지 부근 가스관 매설지 출토 기와] |
| 32 | 因井之寺 | 통일신라 | [춘양(일정)교 서편 교대 출토 기와] |
| 33 | 王滿寺 | 통일신라 | [현곡면 금장리 석장사지 출토 암키와] |
| 34 | 岬山寺 | 통일신라 1080년 | [안강읍 감산사지 출토 암·수키와] 太康六年庚申八月日 岬山寺屬造 [감산사지 출토 암키와] ¹²²⁾ |
| 35 | 甲山寺 | 통일신라 | [안강읍 감산사지 출토 암키와] |
| 36 | 安溪寺 | 나말여조 | [강동면 안계리 산8-4 안계사지 출토 암·수키와] ¹²³⁾ |

- 111)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新羅狼山遺蹟調査』(1985), p.17.
柳煥星, 「慶州 出土 統一新羅時代 寺刹銘 기와의 檢討」 『新羅學研究』 19(2016), pp.107-108.
- 112) 위와 같음. 단 ‘皇福’명문의 ‘福’자 아래에 ‘寺’자의 서두 부분이 보이므로 ‘皇福寺’가 분명하다.
- 11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 숨결 1천년 발굴조사 32년』(2006), p.79.
- 114) 불교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寺址 -시·발굴조사 보고서-경주 미탄사지 I·II-』(2016).
- 11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四天王寺 I-금당지 발굴조사보고서-』(2012), p.244.
- 11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분황사 8차 발굴조사』(발굴조사자문회의자료집)(2012).10.23.
- 11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 天官寺址 發掘調査報告書』(2004), p.247.
- 118) 國立慶州博物館, 『慶州工業高等學校內 遺構收拾調査』(2011), 도판 및 p.70.
- 11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感恩寺 發掘調査報告書』(1997), p.166.
- 120) 김창겸, 「彌勒寺址 石塔 발견 銘文의 ‘大伯土奉聖」 『白山學報』 70, 2004.
- 12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傳仁容寺址 發掘調査報告書 I』(2013), p.248.
柳煥星, 「慶州 出土 統一新羅時代 寺刹銘 기와의 檢討」 『新羅學研究』 19(2016), pp.106-107. 기와 2편이 각각 출토되었으나 같은 개체인 도중사 암막새로 판단된다고 한다.
- 122) 柳煥星, 「慶州 출토 羅末麗初 寺刹銘 평기와의 변천과정」 『新羅史學報』 19(2010), pp.136-137 <표 2>.

<표 6>에서 여러 사원의 이름을 살필 수 있다.¹²⁴⁾ 기왕의 문헌에서 알려진 사원명이 확인된 것도 있지만, 문헌자료나 앞의 <표 5>에서 알 수 없었던 사원명도 다수 확인되었다. 皇龍寺, 四天王寺, 興輪寺, 感恩寺, 石佛寺, 昌林寺, 天柱寺, 普門寺, 靈廟寺(令妙寺), 奉聖寺 등은 문헌자료나 앞에서 살핀 금문·석문·고문서에서 밝혀진 사원들이다. 또한 皇福寺, 味吞寺, 道仲寺, 遠願寺, 三郎寺, 栢栗寺 등의 명문은 문헌자료에 나타난 사원을 실명으로 확인시켜 주었다는데 의미가 있고, 東寺, 四祭寺, 王滿寺, 密谷之寺, 万正之寺, 因井之寺, 岬山寺, 安溪寺 등 8개 사원은 이번 문자자료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다.

위의 자료에서 ‘寺’자가 없는 사찰명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이는 ‘寺’자 부분이 탈락된 것도 있지만, 원래 ‘寺’자를 새기지 않은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¹²⁵⁾ 이는 사원명을 적는 데 당시 유행한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皇龍, 皇福, 天柱, 昌林, 石佛 三郎, 遠願, 味吞, 天王, 四天王 등의 기와명문은 해당 사지에서 출토되었으므로 각각 皇龍寺, 皇福寺, 天柱寺, 昌林寺, 石佛寺, 三郎寺, 遠願寺, 味吞寺, 天王寺, 四天王寺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사원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普門寺’명 기와는 기와의 출토지가 곧 해당 사지임을 알 수 있겠으나, ‘道仲寺’ 명문기와는 傳 仁容寺址(현 仁旺洞寺址)에서 발견되었고, ‘東寺’ 명문 기와는 掘佛寺址에서 출토되어, 사원의 위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昌林’명 기와는 창림사지에서 발견되었지만, ‘昌林寺’ 명 기와는 창림사지와 천관사지에서 발견되었다.

四天王寺의 창건은 나당전쟁기의 산물로서 679년에 완성되었음은 잘

123) 흥덕왕릉 앞 절터, 안강읍 구성 등에서도 같은 명문의 암키와가 발굴되었다. 柳煥星, 「慶州 출토 羅末麗初 寺刹銘 평기와의 변천과정」 『新羅史學報』 19(2010), p.141 <표 6>.

12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南山 -본문·해설판-』, 2002에서는 茸長, 天恩, 神印寺, 四△寺 등의 명문기와도 발견되었다고 하나 설명이 소략하여 제외하였다.

125) 柳煥星, 「慶州 出土 統一新羅時代 寺刹銘 기와의 檢討」 『新羅學研究』 19(2016), pp.109-110.

알려진 사실이다. 사천왕사지에서는 ‘天王’과 ‘四天王’ 또는 ‘天王寺’와 ‘四天王寺’의 두 종류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 天王은 天王寺, 四天王은 四天王寺를 의미할 것이지만, 한 곳의 사원에서 천왕사와 사천왕사 두 종류의 명칭이 사용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천왕사는 사천왕사의 약칭이며, 이는 동시에 사용되었을까?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시간적 선후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처음 天王寺로 불리다가, 뒤에는 四天王寺로 정착되거나 혼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¹²⁶⁾

충남 보령 千房遺蹟 출토 명문기와는 永興寺가 보낸 기와로 사원을 중창하였음을 밝힌 자료이다. 이로써 영흥사의 경제력을 짐작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영흥사의 위치다. 왕경 지역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충청남도 남포현에도 같은 이름의 사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양사 출신의 한 승려가 왕경의 봉덕사, 영흥사, 천엄사, 보장사 등에 엄청난 양의 곡식을 시주한 것을 상기하면, 성전사원이었던 왕경의 영흥사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¹²⁷⁾

奉聖寺는 ‘大伯士奉聖…’ 小壺片 명문에서 그 편린이 보인다. 大伯士는 직명, 奉聖은 왕경의 奉聖寺를 의미한다고 보아, 경덕왕대 익산 미륵사탑의 조영에 관여한 봉성사 소속의 인물을 표기한 문구로 해석되고 있다.¹²⁸⁾ 왕경의 대찰 또는 성전사원 관련 인물의 활동상을 보여준다는 점

126) 사천왕사지에서 다수 출토된 ‘四天王寺已巳年重修瓦’ 기와명문은 매우 중요하다. 사천왕사지 발굴결과 사원의 창건 과정은. 선대 금당지와 목탑지 조성(661-667년), 나당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에 문두루비법을 행하기 위한 단석지 조성(670-676년), 이후 절을 다시 고쳐지어(676-679), 개창(679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허준양, 「고고자료와 문헌을 통해 본 사천왕사의 창건시기 검토」 『四天王寺(Ⅲ) -回廊外廊 발굴조사보고서-』(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2014), p.427). 그렇다면 기사년은 729년, 789년, 849년, 909년 등등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김동하는 1029년 또는 1089년으로 추정하였다(김동하, 『三國遺事』 義解「良志使錫」條의 “天王寺塔下八部神將” 記錄 검토」 『新羅文化』 44(2014), p.156). 그러나 나당전쟁 이전에 사찰 중수가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669년(문무왕 9)도 무시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127) 李泳鎬, 「新羅의 新發見 文字資料와 研究動向」 『韓國古代史研究』 57(2010), pp.198-199.

에서 유의할 만하다.

皇龍寺址에서는 皇龍, 皇龍寺, 大皇[△△] 명문기와가 발견되었다. 大皇[△△]는, 쌍계사 진감선사비에 大皇龍寺가 쓰였듯이, 大皇龍寺임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시기는 흥륜사, 승복사 등의 사례로 보아 신라 말 기일 것이다. 그런데 ‘△籠寺’ 명문기와가 발견되어 주목된다. 중간 글자가 ‘籠’으로 쓰였기 때문에, 황룡사와 다른 별개의 사찰 이름으로 파악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황룡사지에서 출토되었음을 보면, 황룡사를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비록 첫 글자가 탈락되었지만, ‘皇龍寺’를 [皇]籠寺로 쓴 것이라면, 당시 사찰명에 ‘籠’자를 사용하는 데 어떤 제약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심된다.

낭산 동쪽 기슭의 전 황복사지에서는 ‘皇福’ 기와명문과 ‘王福’ 기와명문이 수습되었다. 이곳이 황복사지가 확실하다면, ‘皇福’ 명문이 발견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王福’ 명 기와가 이와 함께 수습되었다. 또한 분황사지 동편, 구황동 苑池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편 바닥에서 ‘芬王’이라 인각된 명문이 확인되었다. ‘芬王’은 곧 ‘芬皇’을 뜻하는 것이다. 중국 기록에서는 芬皇寺를 王芬寺라고 표기하였다.¹²⁹⁾ ‘芬皇’이란 이름 대신 ‘芬王’ 또는 ‘王芬’이라고 쓴 이유가 궁금한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황룡사지 출토 ‘△籠寺’ 명문기와는 ‘皇籠寺’일 수도 있지만, ‘王籠寺’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¹³⁰⁾ 신라는 내부적으로 ‘皇’자를 사용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임의로 쓰지 못하는, 어떤 제한 같은 것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문헌자료가 아닌 당대의 문자자료 검토에서 비로소 찾을 수 있는 성과들이라고 하겠다.

零妙寺와 승妙寺가 靈廟寺를 가리키는 앞서 살핀 바이지만, 같은 장소

128) 김창겸, 「彌勒寺址 石塔 발견 銘文의 ‘大伯士奉聖」 『白山學報』 70(2004).

129) 『삼국유사』 권4, 의해5, 慈藏定律. 『續高僧傳』 권24, 唐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

130) ‘籠’자 앞 글자는 ‘王’자의 맨 하단부로 추정되는 획만 남아 있다.

에서 ‘靈廟之寺’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같은 사원임이 한층 분명해졌다. 그러나 신라 말기 興輪寺가 大興輪寺로, 皇龍寺가 大皇龍寺로 불렸듯이, 令妙寺 또한 이 무렵에 大令妙寺로 불렸다고 생각된다.

万正之寺, 因井之寺, 密谷之寺는 원래 이름이 각각 万正寺, 因井寺, 密谷寺였을 것이다. ‘△△之寺’의 표현 또한 한 시기의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¹³¹⁾ 万正之寺와 因井之寺 기와명문은 경주 중심지에서, 密谷之寺 기와명문은 강동면에서 발견되었다. 王滿寺, 岬山寺(甲山寺), 安溪寺 등의 명문자료는 현재의 경주 중심지에서 떨어진 면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이들 사원들은 이름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사원의 창건 경위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갑산사지에서 “太康六年庚申八月日 岬山寺屬造”란 기와명문이 발견되었다. 2013년 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의 塼佛, 금동불 입상과 甲山寺, 岬山寺 등의 명문와편이 수습되어 갑산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음이 밝혀졌는데,¹³²⁾ 이 명문기와의 발견으로 1080년에도 존속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석장사지에서는 “王滿寺金堂開造草”라 새겨진 고려시대의 명문기와가 발견되어 왕만사의 대략적인 그 존속 시기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¹³³⁾

한편, 사찰에서 출토된 명문기와, 전돌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명문들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표 7〉 사찰 건축 관련 명문

| | 명문 | 출토지 및 종류 |
|---|--------|--------------------|
| 1 | 上增西北第三 | [황룡사지 출토 곱새 기와 조각] |
| 2 | 樓尾 | [사천왕사지 출토 치미 조각] |
| 3 | 南方東間 | [사천왕사지 출토 기와 제품] |

131) 팔공산 부인사지에서는 ‘夫人之寺’ 명문기와가 발견되었다.

132) 한국문화재단,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VIII -경북1-』(2015).

133) 柳煥星, 「慶州 출토 羅末麗初 寺刹銘 평기와의 변천과정」 『新羅史學報』 19(2010), p.142 <표 7> 및 p.155 <표 8>. 한편, 국립경주박물관, 『文字로 본 新羅』(2002), p.311에서는 王滿寺를 王望寺의 다른 표기로 추측하였다.

| | | |
|---|------------|-------------------|
| 4 | 四天王寺己巳年重修瓦 | [사천왕사지 출토 암키와 조각] |
| 5 | 西仲上 | [석장사지 출토 전돌 조각] |
| 6 | 層上 | [석장사지 출토 전돌 조각] |
| 7 | 西北 | [석장사지 출토 전돌 조각] |

황룡사지, 사천왕사지, 석장사지에서 확인된 이들 자료는, 그 명문으로 보아 사원 건축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 鷗尾를 뜻하는 ‘樓尾’ 명문이나, ‘四天王寺己巳年重修瓦’ 명문은 그 단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특히 월성, 월지, 망성리 와요지 등 경주 곳곳에서 ‘儀鳳四年皆土’명 암키와가 다수 출토되었다. 이는 문무왕 19년(679)이란 제작 연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納音五行에서 연월일 간지가 모두 ‘土’임을 나타내어, 왕경의 개조를 위해 선택된 吉日을 의미한다고 한다.¹³⁴⁾

V. 맺음말

신라 왕경의 실태를 문헌자료가 아닌 문자자료를 통해 그 모습을 그려 보았다. 신라 금석문, 목간, 고문서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고려 초의 자료도 이용하였다. 금석문과 고문서는 대부분 불교 관련 자료였고, 목간은 궁궐 관련 자료였다. 금석문은 주로 통일신라기 자료였으며, 신라 말기의 승려들의 비석이 많았다. 문자자료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체계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신라 당대의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았다.

먼저, 신라 수도의 호칭은 20종 정도의 용례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京’자를 사용한 것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都’ ‘城’ ‘邑’ 등의 글자를

134) 이동주, 「新羅 ‘儀鳳四年皆土’명 기와와 納音五行」『歷史學報』 220(2013).

사용하여 수도임을 나타내었다. 지명의 앞뒤에 ‘京’자나 ‘都’자를 붙이거나, ‘某城’ 또는 ‘某邑’이라 한 것이다. 따라서 京, 都, 城, 邑 4자가 수도를 나타내는 글자로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王都와 王城, 金京과 金城처럼 ‘王’자나 ‘金’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들 명칭이 사용된 시기별 분포를 살핀 결과, 신라만의 독특한 표기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이 문헌자료에 흔히 보이는 ‘京城’이나 ‘王京’ 이란 용어가 신라 당시의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왕경의 행정구역에는 6部와 里, 坊이 있었다. 또한 산, 계곡, 숲과 같은 자연환경과 함께, 산성, 우물, 정자, 田莊, 금입택, 와요지 등의 인공적인 시설도 존재하였다.

궁궐의 호칭으로 20여 종이 사용되었으나, 某宮으로 쓴 경우와 某闕로 쓴 경우가 많았다. ‘宮’ 또는 ‘闕’이 왕의 처소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기였던 것이다. 그밖에 주요 전각으로 蘭殿과 祕殿, 思正堂이 있었다. 궁문으로는 北宜門, 隅宮 北門과 西門, 東門, 開義門, 策事門, 思易門 등이 있었다. 北宜門은 思正堂의 문이었다. 사정당의 남북 또는 동서남북의 4방에 문이 있었다고 보아, 사정당을 큰 전각으로 추정해 보았다. 신라의 핵심 4部인 집사부, 병부, 예부, 창부가 모두 나타났으며, 내성 및 동궁관 산하의 일부 내정관부도 확인하였다. 砲石’ 명문기와를 통해서도 남산 주변 절경지에 포석정과 같은 亭子와 이를 관리하는 관부가 여럿 존재함을 밝혔다.

사찰의 검토에서는 문헌에 없는 다수의 사찰명이 확인되었다. 금문과 석문, 고문서에서 神仙寺, 寶藏寺, 普門寺, 禪房寺, 實際寺, 大寺 등을 처음 확인하였고, 기와 및 토기 명문에서는 東寺, 四祭寺, 王滿寺, 密谷之寺, 万正之寺, 因井之寺, 岬山寺, 安溪寺 등을 처음 확인하였다. 특히 진흥왕대의 實際寺와 신덕왕대의 實際寺가 다르다는 사실, 처음 鶴寺였던 崇福寺가 고려 초에 다시 鶴寺로 불렸다는 사실, 그리고 황복사 비편에서 봉

덕사, 봉성사의 처음 이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감은사나 영묘사, 흥륜사의 처음 명칭을 밝힌 것은 주요 성과였다. 나아가 芬皇寺의 명칭을 ‘芬王’으로 표기한 것, 皇福寺의 명칭을 ‘王福’으로 표기한 것, 그리고 皇龍寺를 ‘[皇/王]籠寺’로 표기한 것 등의 사례에서, ‘皇’자나 ‘龍’자의 사용에 어떤 제약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신라 왕경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된다. 당대의 문자자료를 통한 新羅王京史 연구도 주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특정한 세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관련 자료의 거시적이며 기초적인 정리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다 보니 서술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들을 깊이 있게 언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장차 주제를 세분하고, 각각의 분야를 심도 있게 검토하면, 신라 왕경의 또 다른 모습들이 많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점은 차후의 과제로 삼아 계속 보완하고자 한다.

■ 논문투고일자: 2018.07.15. 심사완료일자: 2018.08.18. 게재확정일자: 2018.08.19.

[참고문헌]

가.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史綱目』, 『續高僧傳』

나. 자료집, 보고서, 도록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感恩寺 發掘調査報告書』(1997).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南山-本文·解說篇-』(2002).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天官寺址 發掘調査報告書』(2004).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四天王寺 I : 금당지 발굴조사보고서』(201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분황사 8차 발굴조사』(발굴조사자문회의 자료집)(2012.10. 2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 왕궁 월성』(2018).

國立慶州博物館, 『文字로 본 新羅』(2002).

國立慶州博物館, 『慶州工業高等學校內 遺構收拾調査』(2011).

국립경주박물관·慶州世界文化엑스포조직위원회, 『新羅瓦磚』(2000).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나무 속 암호 목간』(예맥, 2009).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석가탑 유물 2 : 重修文書』(2009).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개정판) 韓國의 古代木簡』(예맥출판사, 2006).

金福順·韓政鎬 編, 『韓國金石文集成(14) -碑文10 造像銘-』(한국국학진흥원, 2012).

노명호 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서울대출판부, 2000).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新羅狼山遺蹟調査』(1985).

불교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寺址-시·발굴조사 보고서 -경주 미탄사지 I·II-』(2016).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전3권)(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VIII -경북1-』(2015).
許興植, 『韓國金石全文(中世上)』(아세아문화사, 1984).
한국역사연구회,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下)』(혜안, 1996).

다. 단행본

- 文暉鉉, 『新羅史研究』(경북대학교 출판부, 1983).
朴方龍, 『新羅都城』(학연문화사, 2013).
박철상, 『나는 옛것이 좋아 때론 깨진 빗돌을 찾아 다녔다』(너머북스, 2015).
李基東,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一潮閣, 1984).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74).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을유문화사, 1977).
이영호,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지식산업사, 2014).
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일지사, 1993).
鄭求福 外,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주석편 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東潮·田中俊明, 『韓國の古代遺蹟(新羅篇)』(中央公論社, 1988).
葛城末治, 『朝鮮金石攷』(大阪屋號書店, 1935).

라. 논문

- 강봉원, 「"구어역"(仇於驛)의 위치에 관한 고찰: 불국사 경내 출토 "仇於駟"(구어역) 명문기와와 관련하여」『大丘史學』 98(2010).
김동하, 「『三國遺事』 義解 「良志使錫」條의 “天王寺塔下八部神將” 記錄 검토」『新羅文化』 44(2014).
김병근, 「신라 헌덕왕대의 副君 秀宗의 정체성과 太子」『東國史學』 55(2013).
김병근, 「신라 東宮의 역할과 영역 -임해전 및 안압지와 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韓國古代史探究』 20(2015).
- 김창겸, 「彌勒寺址 石塔 발견 銘文의 ‘大伯士奉聖」 『白山學報』 70(2004).
- 柳煥星, 「慶州 출토 羅末麗初 寺刹銘 평기와의 변천과정」 『新羅史學報』 19(2010).
- 류환성, 「경주 명활성의 발굴성과와 향후 과제」 『韓國城郭學會 初代監事 沈正輔 教授 退任紀念論叢』(2014).
- 柳煥星, 「慶州 出土 高麗時代 ‘院’銘 기와의 檢討」 『木簡과 文字』 14(2015).
- 柳煥星, 「慶州 出土 統一新羅時代 寺刹銘 기와의 檢討」 『新羅學研究』 19(위덕대, 2016).
- 문경현, 「新羅王京攷」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6(『新羅王京研究』)(1995).
- 尹善泰,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韓國史研究』 108(2000).
- 윤선태, 「雁鳴池 出土 ‘門號木簡’과 新羅 東宮의 警備 -國立慶州博物館 촬영 赤外線 善本寫眞을 중심으로-」 『新羅文物研究』 장간호(2007).
- 尹善泰, 「新羅 中古期 六部の 構造와 그 起源」 『新羅文化』 44(2014).
- 李道學, 「堤川 점말동굴 花郎 刻字에 대한 考察」 『충북문화재연구』 2(2009).
- 이동주, 「新羅 ‘儀鳳四年皆土’명 기와와 納音五行」 『歷史學報』 220(2013).
- 李文基, 「新羅의 文翰機構와 文翰官」 『歷史教育論集』 21(1996).
- 李文基, 「안압지 출토 木簡으로 본 新羅의 洗宅」 『韓國古代史研究』 65(2012).
- 李文基, 「新羅 洗宅(中事省)의 機能과 官制의 位相의 變化」 『歷史教育論集』 51(2013).
- 李泳鎬, 「新羅 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韓國史研究』 43(1983).
- 李泳鎬, 「7세기 新羅 王京의 變化」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6(『國邑에서 都城으로』)(2005).
- 李泳鎬, 「新羅의 新發見 文字資料와 研究動向」 『韓國古代史研究』 57(2010).
- 李泳鎬, 「新羅 國學의 成立과 變遷」 『歷史教育論集』 57(2015).
- 李泳鎬, 「팔공산 ‘夫人寺’의 탄생」 『嶺南學』 62(경북대, 2017).
- 이한상, 「慶州 月城 東南쪽 王宮遺蹟 調査의 成果 -南宮의 景觀復原을 위하여-」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6(『國邑에서 都城으로』)(2005).
- 이현태, 「신라 ‘南宮’의 성격 -‘南宮之印’명 기와의 출토지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1(2011).

- 정선중, 「실상사 秀澈和尚塔碑의 陰記와 中건에 대하여」 『불교문화연구』 11(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09.
- 최경선, 「영원사수철화상비」의 관독과 찬자(撰者)·서자(書者)에 대한 검토 -신라 말 당 관계의 수용과 정치운영과 관련하여-」 『역사와 현실』 101(2016).
- 최순조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유적 출토 신명문자료 -東宮衙銘 호 및 辛番(?)東宮洗宅銘 청동접시-」 『木簡과 文字』 10(2013).
- 추만호, 「심원사 수철화상 능가보월탑비의 금석학적 분석」 『역사민속학』 1(1991).
- 하일식, 「昌寧 仁陽寺碑文의 研究 -8세기 말~9세기 초 신라 지방사회의 단면-」 『韓國史研究』 95(1996).
- 허준양, 「고고자료와 문헌을 통해 본 사천왕사의 창건시기 검토」 『四天王寺(III) -回廊外廊 발굴조사보고서-』(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 홍기승, 「경주 월성해자·안압지 출토 신라목간의 연구 동향」 『木簡과 文字』 10(2013).
- 하시모토 시게루(橋本繁), 「雁鴨池 木簡 判讀文의 再檢討」 『新羅文物研究』 창간호(2007).
- 三池賢一, 「新羅內政官制考(上)」 『朝鮮學報』 61(1971).

Silla's "Monarch Capital" from the Perspective of Letter Materials

Lee, Young-ho

[Abstract]

This study depicts the picture of Silla's "monarch capital" not in terms of text materials but of letter materials. It makes use of epigraphs, wooden tablets, and duplicated materials of the Buddhist scriptures in the Silla period as the main research sources as well as some materials of the succeeding Goryeo period. Although unlike such historical texts as *Samguk sagi*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and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letter materials have significant limitations to be used, they assume importance as Silla's contemporary source materials.

This study gives some 20 examples as the name of the Silla capital. The name used the character "gyeong(京)" most and then characters "do(都)" "seong(城,)" and "eup(邑)." It was usual that the character "gyeong" was used as a suffix and the character "do" was added as a prefix. Otherwise, "mo-seong" and "mo-eup" were used. Also, like the names "Wangdo(王都)," "Wangseong(王城)," "Geumgyeong(金京)," and "Geumseong(金城)," characters "wang(王)" and "geum(金)" were us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eriodic distribution, there is no evidence that only Silla used its own specific expressions. Furthermore., it is remarkable that the terms "Gyeongseong(京城)" and "Wangseong(王京)" that are frequently described in text materials do not appear in Silla's contemporary source materials. The administrative precinct of the monarch capital contained six bu, ri, and bang. It also included such natural environment as mountains, valleys,

forests, as well as such artificial facilities as mountain fortresses, wells, pavilions, farms, palatial mansions, and reservoirs.

This study confirms more than 20 instances of the name of the palace in the monarch capital. Among them, “mo-gung(某宮)” and “mo-gyeol(某闕)” appear most frequently, which means that they were generally used to indicate monarch’s residence. Within the palace were lots of many-storied buildings and gates. Especially, the Sajeong-dang was a large building that had gates to the east and west or north, south, east, and west. The Jipsa-bu, Byeong-bu, Ye-bu, and Chang-bu, Silla's essential administrative agencies, were all located within or without the palace in the monarch capital. This study also identifies the existence of several pavilions, specifically the Poseokjeong (resort), in the scenic places close to Namsan (mountain).

This study confirms the names of a lot of Buddhist temples that text materials deleted. In particular, it suggests that the Silje-sa (temple) in the reign of King Jinheung was different from that in the reign of King Sindeok and that the Sungbok-sa was renamed the Gok-sa in the early Goryeo period. It also confirms first names of the Bongdeok-sa and Bongseong-sa from the broken monument of the Hwangbok-sa. Finally, as evidenced by the fact that the Bunhwang-sa was described as Bunwang-sa, Hwangbok-sa as Wangbok-sa, and Hwangryong-sa as Hwangrong-sa or Wangrong-sa, this study conjures that the Silla kingdom might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f characters “hwang(皇)” and “ryong(龍).”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leeyho@knu.ac.kr)

Key words : letter materials, epigraphs, wooden tablets, duplicated materials of the Buddhist temples, Silla’s monarch capital, palace, administrative agencies, Buddhist temples

